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연구책임자 | 임 순 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인 쇄 2004년 11월

발 행 2004년 1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5,000원

©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무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 임순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 cm. — (연구총서 ; 04-03)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46-2

349-KDC4
327-DDC21

CIP2004001707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목적과 방법	1
2. 선행 연구성과	3
II. 북한 식량난의 사회적 파급 현상	13
1. 식량난 실태	13
2. 사회적 파급현상	23
가. 비공식경제의 활성화	23
나. 사회질서의 혼란 및 사회통제 이완	27
다. 가족구조의 변화	34
라. 주민의식 변화	43
III. 식량난이 북한 여성에게 미친 영향	49
1. 노동부담 증대	50
2. 성폭력의 심화와 성의 도구화	53
가. 성폭력의 심화	53
나. 생계유지를 위한 성의 도구화	61
3. 건강 악화	65
4.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 강화	72

IV.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의 역할 및 의식 변화	79
1. 역할 변화	79
가. 가족부양 책임 증대	79
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	87
2. 의식 변화	92
가. 자아의식의 변화	92
나. 성의식의 변화	97
다. 경제의식의 변화	98
V. 결론	101
참고문헌	10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09

서론

I

1. 연구목적과 방법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친 크고 작은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알려진 대로 북한의 식량난은 1980년대 말 이래 점차 확대된 북한의 부분적 개방으로 인한 외부 사조 및 문물의 침투와 함께 특히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는 북한사회 변화를 촉진하여 가속화한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사회 구성원의 변화가 북한사회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서 작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구성원의 변화가 사회변화의 주요 동인으로서 작용했다고 할 때, 북한사회 변화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식량난이 북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 및 계층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진한 편이며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한 글들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특히 북한여성은 식량난으로 인해

다른 집단 및 계층에 비해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북한 여성의 역할 및 의식에 있어 변화가 초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가족제도, 또는 중국 및 국내 거주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실태를 조사 분석한 연구결과물들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이 연구와 같이 단일주제로 한 심층 분석이 본격 시도된 것은 드문 편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식량난이 북한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초래된 북한 여성의 역할 및 의식 변화를 분석하여 논하며, 이를 통해 북한 사회 변화 실태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주로 관련문헌을 자료로 한 내용분석이며, 문헌의 대부분은 중국, 또는 국내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내지 수기를 모아놓은 책자들이다. 또한 주요 분석자료인 관련 책자들의 내용을 검토, 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 10여 명과의 심층면담결과와 관련 선행 연구결과물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다. 연구범위는 시기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요청함으로써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그러나 관련 책자 및 심층면담 결과 등 분석자료의 내용들이 주로 2000년 이전에 탈북한 북한여성들의 증언 내지 수기이므로, 분석결과는 식량난이 극도에 달했던 1990년대 중반 이래 5~6년 동안 나타난 이 연구주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선행 연구성과

이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물들의 대부분은 중국, 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면접조사결과를 주요 분석자료로 하고 있다는 데에 방법론상의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론상의 공통점으로 인해 선행 연구결과물들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같은 한계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설문 및 면접의 대상인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는 또 다른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선행 연구결과물들 가운데 최명숙의 논문¹은 연구자가 북한을 직접 현지 방문하여 여성들과 면담한 내용들을 분석자료로 하여 작성한 글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먼저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여성들의 가족생계 유지 부담이 매우 커졌으며 가족부양을 위해 북한여성들이 희생적·헌신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열악한 의식주생활 환경에서 여성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경제난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는 종래 북한여성들이 가정주부로서의 전통적 역할과 함께 자신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위한 사회참여로 인해 이중부담을 겪어 왔으며, 특히 식량난 이후에

¹ 최명숙, “90년대이후 조선녀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한국여성연구원,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연변대학 여성문제연구중심, 1999), pp. 1-15; 이 글은 ‘중국 연변대학 여성연구중심’ 소속의 연구자가 주로 탈북자, 조선주재 현지 중국기업인, 친척방문자, 중국방문학자 등을 상대로 한 인터뷰 내용과 자신이 1990년 이후 두 차례 (1990년 3월 두 달 남짓한 평양 남포 등 지역과, 1996년 4월 한 달가량의 신의주, 평양, 개성, 청진, 회령 등의 지역)의 북한 방문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는 탁아소, 유치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부실해져 자녀양육의 부담 등 가사노동량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연구자는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대부분의 북한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분거해 있거나 이혼한 것과 다른없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가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가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가정에서의 수직적인 불평등한 부부관계와 일부 남성들의 권위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식량난으로 인해 “식량위기 후 서로 잠시간 갈라져 사는 것이 상수라고 부부지간, 부모자식지간 생리별을 하는 현상”도 많으며, “식량난 후 사회질서가 혼란되면서 외도하는 남자, 여자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고 전하고 있다. 연구자는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속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은 것도 여성들이었고 식량난 속에서 생계유지의 최전선에 서있는 것도 여성들이며, 이와 같은 현실을 초래한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조선민족의 남존녀비 봉건륜리관념”도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중국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 소속의 연구자인 림금숙의 논문²은 탈북자 및 현지중국기업인, 학자방문인원 등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글이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여성자신 및 사회,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후 앞으로의 변화 추세를 예측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북한여성들의 경

² 림금숙, “90년대이후 조선녀성들의 사회경제활동참여의 변화,”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연변대학 여성문제연구중심, 1999), pp. 17-29.

제활동 참여의 변화에 있어 총체적 특징은 극소수의 전문직 여성들과 합영기업소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장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이 이와 같이 장사를 주업으로 함으로써 여성들 자신과 사회 및 가정에 영향을 미치었는바, 연구자는 이를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여성들의 상품경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장사비결이 늘었다고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상품경제는 자본주의라는 관념 하에 장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상이 나쁜 사람으로만 보던 인식이 점차 변화”하여 “이제는 장사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장사를 본격화함에 따라 점차 장마당 상품의 질이 높아졌으며 “여성들의 담량이 늘어 조선 전국 각지 그 어디라도 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오늘의 조선여성들”이라고 평가하며, 이와 같은 변화는 앞으로 북한의 진일보한 개혁과 개방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될 것이며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진일보 증강시킬 것이라고 한다. 연구자에 따르면 북한여성들의 장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열악한 장사 환경으로 인한 여성들의 심신건강 악화, 단순한 장사로 인한 여성인력의 질 저하, 금전만능의 가치관 확산, 가정위기·교육위기 심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북한여성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는 생계를 위한 “매음녀” 생활, 남편과의 별거, 또는 가출, 자녀들의 “꽃제비 유랑”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북한여성들의 강인함과 자아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고난의 행군길’에서 북한여성들이 어려움을 감내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식과 가정을 위한 모성애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현선의 박사학위논문 “현대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³는 북한가족의 사회적 재생산 매커니즘을 구체적 수준에서 분석하여 경제난과 식량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한 북한가족의 전략적 행위와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가족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 논문은 가족전략(family strategy)⁴ 개념을 중심으로 북한가족에 대한 구체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먼저 빈곤문제에 직면한 북한가족이 1994년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세 가지의 가족전략⁵을 행사하였으며 그 가운데 특히 ‘수입의 극대화와 지출의 극소화를 통한 생계유지전략’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게 강조된다고 한다. 여성은 생산노동을 하면서도 무보수 가사노동을 담당하여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며, 친족 연계망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매개자적 역할을 담당하여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연구자에 따르면 북한가족의 가족전략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족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족단위의 생존과 부양 의무 강조에서 비롯된 가족주의 강화와 여성의 책임 및 역할이 증대하는 성역할 분담성 강화이다. 북한 여성들은 경제난 이후 더 많은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함으로써 ‘혁명적 현모양처’⁶를 실현하고

³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⁴ 가족전략이란 가족이 구조적인 변화 압력에 대응하여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양식을 의미한다. 위의 글, p. 17.

⁵ 가족전략은 수입의 극대화와 지출의 극소화를 통한 생계유지전략, 가족이동과 가족해체를 통한 가족구조 변화전략, 사적 연결망과 공적 연결망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연결망 활용전략 등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⁶ 혁명적 현모양처는 사회주의와 가부장제의 상호보완적 공존관계를 보여주는 예라고 한다.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 261.

있으며 이는 곧 여성의 이중부담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현 시점에서 북한에서 강조되는 가족은 어디까지나 여성에 의해 유지되는 가족,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가족이며, 특히 경제난은 북한 주민들에게 여성에 의해 유지되며 여성의 역할이 절대적인 가부장제적 가족에 대한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상황이 전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지는 않은 바, 연구자는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의 역할 증대가 미미한 수준에서나마 가장권의 변화나 성역할고정성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된 1994년 이후 여성들의 가족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높아지기 시작한지 3년 내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부터는 가장권의 변화, 부부관계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식사준비나 청소 등의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경향이 생겨 성역할고정성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구수미·이미경의 논문 “1990년대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⁷은 경제난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1990년대 북한의 상황에서 여성들의 삶과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고찰한 글이다. 이 연구는 직업별, 계층별로 세분하여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의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세 도시 지역-청진·신의주·혜산-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특징에 따라 도시여성들의 삶과 의식의 차이를 추적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르면 경제난 이전의 북한여성들은 양성평등의 원칙아래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경제활

⁷ 구수미·이미경, “1990년대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북한연구학회 2004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pp. 89-113.

동에 참여하면서도 가사와 육아의 전담자로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며, 특히 북한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은 여성의 자아실현이나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기보다 국가의 인력수급계획과 여성 자신의 생계유지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사회활동과 가정생활의 병행은 북한여성들로 하여금 이중의 부담을 겪게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연구자는 이와 같은 이중부담으로 인해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주요한 가치는 “남편 잘 만나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여성의 대부분은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여성들의 삶은 자신의 직업과 능력 이외에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이런 현상은 경제난 이후에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난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가족차원에서 마련하게 되면서 북한여성의 역할과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는바, 여성의 경제활동은 이전의 보조적인 것에서 가계생계를 전담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여성들이 이전부터 해오던 가내작업반을 통한 부업형식의 일들-수가공업·장사-이 주 본업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역할변화와 함께 점차 가정에서의 성 역할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한편 의식의 변화도 수반하게 되었는바, 생계를 책임진 여성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거나 가사와 육아가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재고하는 한편 남편들도 변화된 여성의 삶과 의식의 변화를 수용하는 경향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는 계층을 초월한 북한사회 전반에 걸친 것이기보다는 경제난으로 생활의 변화가 심한 중하층에 국한된 것이며, 경제난 이후 여성들이 생계의 전담자가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남편의 사회적 지위는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고 한다. 또한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들의 삶과 의식의 변화는 이전까지 유지되어 오던 가부장제의 와해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해도 북한여성의 의식은 가부장적 요소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는바, 여성들은 생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이전의 엄격한 성별분업에 대한 의식은 깨어졌지만 여전히 가사와 육아, 가정의 화목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부장으로서의 남편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은 경제난 이전과 이후 모두 자기 능력껏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보다 풍족한 삶이 보장되는 남자에게 시집가서 편안히 사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식 변화의 한계는 경제난 이전과 다름없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이 자신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먼 생계유지차원에서 행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의식 변화의 한계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바, 여성들은 이전보다 조직과 사회생활에 대한 결속감과 귀속감이 희박해졌지만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생계유지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참여했으며, 가족중심의 생계유지에 몰두한 나머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지만 집단주의 정신과 의식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당초 이 연구가 의도했던 경제난 이후 청진, 신의주, 혜산 등 세 도시지역 여성의 삶과 의식의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과 관련해 연구자는 세 도시지역 출신여성들과의 면담 결과 이들 세 도시의 지역적 차이보다 각 도시의 계층별 차이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의 변화 및 한계는 지역적 차이보다 계층별로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노옥재의 “북한식량난 속의 여성의 삶과 인권”⁸은 식량난 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이 겪고 있는 삶의 질 저하와 인권 유린 실태를 중국 거주 북한이탈여성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량난 속에서 북한여성의 삶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북한여성들은 식량난의 과정에서 생계부양 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의도하지 않게 여성들이 독립적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도 보인다. 둘째, 식량난의 과정에서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을 할 최소한의 보장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들의 재생산권의 기반이 박탈되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아 최소한의 정서적·안정적 공간으로서의 가족은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여성들은 일상에서 성폭력에 노출되고 생존형 성매매에 나서게 된다. 초기적인 생존형 자본형성은 여성의 몸을 자원으로 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대기숙박업이나 음식점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여성들이 성폭력과 생존형 성매매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상 다르지 않은바 성폭력과 성매매는 생존을 피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넷째, 살아남기 위한 식량이나 돈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과 강제구금, 강제결혼을 하거나 유흥업소에 팔려간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북한여성들이 식량난의 과정에서 겪고 있는 위와 같은 경험들은 한 인간이 겪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며, 북한여성들이 겪어 온 비인간적 상황은 한 개인여성

⁸ 노옥재, “북한 식량난 속의 ‘여성’의 삶과 인권,” 『북한여성의 삶·꿈·恨』 (서울: 민주평통 북한연구회·(사)좋은벗들, 2003), pp. 3-22.

으로 뿐만 아니라 분단이 가져온 여성인권 침해의 극단적 형태라고 강조한다.

위의 다섯 편의 논문들을 종합해 보건대 모든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여성들의 가족생계유지 부담이 매우 커졌으며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생계부양자로서의 과도한 역할 부담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를 테면 여성들의 건강악화, 생존형 성매매 및 인신매매 경험, 가족해체 등이 그것이다. 둘째, 가족부양 책임에 따른 식량 및 생활비 조달을 위한 경제활동의 증대와 함께 가사노동의 전담으로 인해 여성의 이중부담이 보다 더 가중되었으며, 이는 곧 성역할 분담성 내지 고정성 강화를 의미한다. 셋째, 가족부양을 위한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증대로 인해 미약하나마 가장권 및 성역할 고정성에 있어 변화가 야기되었으나 이러한 변화가 곧 북한여성의 가부장적 의식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의 삶과 의식의 변화로 인해 이전까지 유지되어 온 가부장제가 와해되었다고 해도 북한여성은 가부장적 의식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다. 넷째, 대부분의 여성들이 장사를 주요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의 심신건강 악화, 여성인력의 질 저하, 가정 위기·자녀교육 위기 심화 등의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지만 장사를 통해 여성들의 상품경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여성 자신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장사는 여성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었다.

요약하건대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주요 논지에 따르면 식량난을 겪는 동안 북한여성의 의식 및 역할은 식량난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

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회경제활동과 가사전담의 이중부담이 보다 더 커지고 성역할 분담성 내지 고정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또한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북한여성의 경제적 자립도 내지 독립생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및 가정에서 북한여성의 지위는 이전과 거의 마찬가지로이며, 이는 북한여성의 의식에 있어 가부장적 요소가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 식량난의 사회적 파급 현상

1. 식량난 실태

중국 연변대학의 한 연구자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식량난은 줄곧 북한의 큰 문제였다고 한다.⁹ 북한은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에 의거해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전 주민들에게 식량배급제를 실시하였으며, 1970년대까지는 평양을 제외한 기타 지방의 주민들도 쌀밥은 많이 못 먹었어도 굶지는 않는 정도였다. 그러나 1973년 이후 전쟁비축미로 매일 4일분씩 제하였고 1987년 이후는 절약미 공제로 3일분씩 제한으로써 실제 공급량은 규정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졌다.

1980년대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식량난은 1990년대 들어 종래 북한에 대해 식량 및 연료·비료의 최대 공급국이었던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대 북한정책 변화로 인해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악화되었으며 잇따라 발생한 냉해(1993/1998), 대홍

⁹ 최명숙, “90년대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p. 1.

수(1995/1996), 고온 및 해일과 가뭄(1997), 강우부족(1999) 등 자연 재해로 인해 보다 더 심화되었다.¹⁰ 식량난이 초래한 가장 비극적 현상은 기아, 곧 굶주림이다.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굶주림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실태를 반영한 것은 때를 같이 하여 나타난 북한주민들의 야생식량 구하기, 취약한 인구집단의 영양결핍 상태, 가축용 동물의 소비 증가, 가재도구와 가옥 매매, 다수 인구의 이동 등의 현상이었다.¹¹

북한의 식량난은 대체적으로 1990년대 초에 그 징후를 드러냈으며 중반에 들어서면서 점차 심화되어 1997년과 1998년에 극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중국 거주 탈북난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결과에 따르면 1993년부터 배급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으며 1994년부터는 아사자가 증가했고, 가장 힘든 시기는 1997년과 1998년이었다고 한다.¹² ‘(사)좋은벗들’이 중국 거주 탈북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북한의 식량난이 1995년도 대홍수 이후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92년 이전부터 상당히 진행되어 왔으며 보다 심화된 해가 1994년과 1995년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¹³ 또한 중국에 거주하는 한 탈북난민의 증언에 의하면 1996년과 1997년에 당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시달하였으며, 1998년에도

¹⁰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 농업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고질적 문제이며 기후 및 기상과 같은 자연조건과 전반적인 경제난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¹¹ 나초스 지음, 황재옥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서울: 다홍미디어, 2003), p. 66.

¹² 김태현·노치영,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3), p. 65.

¹³ “북한 식량난의 실태: 북한 식량난민 1,694명의 면담조사 결과보고서,” 강정구·법륜 엮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서울: 정토출판, 1999), p. 195.

주민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시기가 닥쳐올 것임을 알려주고 이에 대비할 것을 시달하였다고 한다.¹⁴

이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북한의 식량난은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 실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1996년 평양을 방문하여 식량배급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자에 의하면 당시 평양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량은 하루에 300g(피부양자는 100g)이었으나, 함경북도 청진, 무산 등의 지방에서는 1995년 이후 3개월분 공급을 초과하지 못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포함해 연 4회, 그것도 이틀 분씩만 공급했다고 한다.¹⁵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중국 거주 탈북난민들의 증언을 모은 책들¹⁶에서는 “식구들 모두가 34일씩 밥을 못 먹을 때가 보통”이었다는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주민들의 식생활 형편은 주식뿐만 아니라 부식구입의 어려움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북한은 주식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확고가 높은 옥수수 재배 면적을 대폭 늘리고 콩의 재배면적을 줄였는데 콩의 절대부족으로 식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된장, 간장, 고추장, 콩기름 등의 부식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24 가구 가운데 34호 가구만이 된장, 간장을 먹을 수 있

¹⁴ 나초스 지음, 황재욱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 49.

¹⁵ 최명숙, “90년대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pp. 2-3.

¹⁶ 강정구·법륜 엮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 인권』 (서울: (사)좋은벗들, 2004); 사단법인 좋은벗들 엮음, 『사람답게 살고싶소: 북한난민 1,855명 증언』 (서울: 정토출판, 1999); 좋은벗들 엮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서울: 정토출판, 1999);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저,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002); 좋은벗들 엮음,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2000); 권혁, 『고난의 강행군』 (서울: 정토출판, 1999); 김태현·노치영,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을 정도였다고 한다.¹⁷ 또한 식량배급이 중단됨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배급되었던 장류 및 조미료에 대한 배급마저 중단되었으며 다소 형편이 나은 집에서는 소금으로 일체의 간을 맞추었다고 한다.¹⁸

식량난 극복을 위해 북한당국은 ‘죽 먹기 운동’, ‘하루 두 끼 먹기 운동’, ‘허리띠 줄러매기 운동’ 등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속도 전 가루’, ‘납새밥’, ‘김치밥’, ‘산나물 죽’ 등의 대용식품을 개발하여 적극 권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풀뿌리, 벼뿌리, 드릅나무, 뽕나무, 소나무껍질, 산나물, 들풀 등을 대체식품으로 하여 하루 한 끼 정도로 연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좋은벗들’이 1998년 1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실시한 중국 내 탈북난민들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식량배급이 중단된 후 ‘풀뿌리·벼뿌리·소나무껍질 등을 먹고살거나’(57.2%), ‘장사를 하거나’(46.0%), ‘가구·집기를 팔아서’(40.8%), ‘친지 도움을 받아서’(19.4%)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중국 거주 탈북난민들과 국내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식량사정이 아주 어려웠던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은 풀뿌리를 캐어다가 죽을 쑤어 먹든가, 또는 송기(소나무 어린 가지의 속껍질)를 갈아 만든 떡 등을 먹었으며, 추수 후에는 벼 뿌리를 캐어다가 옥수수와 섞어 갈아서 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소화장애로 인해 크게 고생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주로 친척, 친구, 이웃, 또는 동료들 가운데 큰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약간의 물품을 도매 받아 가지고 시골이나 다른 지방에 가서 옷돈을 좀 붙여 팔고 본전은 돌리고 남은 것으로 식량을

¹⁷ 최명숙, “90년대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p. 3.

¹⁸ 김태현·노치영,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p. 66.

¹⁹ 강정구·법륜 엮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 p. 196.

사서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하루살이 장사를 하였다.²⁰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식량난으로 인한 타격은 거주지역별·직업별로 차이를 나타냈으며 단위가족의 수 및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 내지 경제력, 친족의 지원여부 등에 따라서도 정도를 달리하였다.

지역적으로 기근의 피해는 함경남도를 위시한 동북지역과 평안남도 등 서북지역에서 심각했던 반면 황해남도를 포함한 서남지역과 평양 등 특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적었다.²¹ 대부분 국제사회의 지원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간 수송체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 산간지역과 동부지역의 식량난이 더욱 심각했다.²² 그러나 북한 동북지역의 기근피해가 심각했던 것과 관련해 나초스(Andrew S. Natsios)는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로 이 지역에 대한 북한당국의 차별적 분배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나초스는 중국 거주 탈북난민의 80%이상이 동북지역 출신이라는 점은 이 지역 주민들이 중국 조선족에의 접근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북한당국의 차별적 분배정책의 희생자들로서 가장 많이 궁핍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당국은 1990년 초 동북지역에 대한 식량배급을 감소시키고 1994년에는 완전히 식량배급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동북지역의 기아로 인한 사망률은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

²⁰ 림금숙, “90년대이후 조선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참여의 변화,” pp. 24-25.

²¹ 이석, “1994~2000년 북한 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국가전략』 제10권 1호 참조.

²² 이금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98-99.

있고 가장 일찍 나타났다는 것이다.²³ 또한 북한의 기아는 농촌보다 텃밭이 없는 도시지역에서 더 심각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물품 입수가 어려운 동해쪽 공업도시의 노동자에게 타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차이는 중국 거주 탈북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북한 전체 인구의 25%를 농민이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거주 탈북난민들 가운데 농민은 4%에 불과하며, 조사에 응한 탈북난민들은 농촌(1.9%)보다 도시지역(70.4%)이 기아가 심각하다고 답하였다.²⁴ 그러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형편도 크게 악화되었는바,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량난으로 인한 직업별 사망률은 전문직노동자(7.0%), 사무직노동자(11.8%), 생산직노동자(18.4%), 농민(24.0%), 무직업(45.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²⁵

북한은 성분별 계층구조화 된 사회이고 성분에 따라 국가공급 및 국가적 혜택의 수준을 달리한다. 따라서 식량난으로 인한 타격도 계층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는바, 북한사회의 상층부보다는 중·하층부의 생활고가 더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직·사무직노동자보다도 생산직노동자와 농민의 사망률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있는 위의 직업별 사망률도 이러한 실태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개인 직업별로 보아 특히 사무직 여성들은 식량난 해결을 위한 대안

²³ 동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방당한 적대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할 때, 차별적 식량분배정책은 정치사상적 계층분류에 기초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나초스 지음, 황재옥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p. 155-158 참조.

²⁴ 나초스 지음·황재옥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 140.

²⁵ 강정구·법륜 엮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 p. 188;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주민의 사망원인은 기아 그 자체보다는 기아로 인한 질병 발생 및 악화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련에 능동적·적극적이지 못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주기적인 사상교양 학습과 획일적·계획적인 조직생활을 해온 데 따른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²⁶ 또한 학생교육, 환자진료 등을 담당하는 교사, 의사 등의 전문직은 생활이 어려워도 일상적인 교육이나 진료 등의 직무를 중단하고 부업을 할 수 없었으며 당의 통제도 보다 엄격했으므로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량난에 따른 생활고가 심하였다고 한다.

북한에는 장사 자체가 자본주의의 온상이라고 해서 반대했어요. 그러나 식량사정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도 교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 이미지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내용하고 본인들 생활하고 틀리니까 당에서 교원들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더 힘들지요.²⁷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북한주민들은 식량난으로 인한 타격이 보다 덜했으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생활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에 계신 외할머니께서 분기에 한 번 500달러씩 보내 주셔서 괜찮았어요. 여기서 500달러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거기서는 평생 벌어도 못 만지는 돈이

²⁶ 식량난을 겪는 동안 자살을 한 북한주민들 가운데 인텔리들이 적지 않았는바, 북한적 상황에서 인텔리는 현실이 요구하는 '생활력'을 갖추기 어려운 사람들로서 국가공급이 중단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 무력감과 절망에서 허덕이다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승철,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 양식과 마지막 희망』 (인천: 자료원, 2000), p. 35.

²⁷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 116에서 재인용.

예요. …4명 식구가 3,000원, 4,000원이면 충분히 살아요. …부업은 안 했어요.²⁸

중국에 친척이 있는 북한주민들은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국경을 넘어가기도 했으며, 또는 중국에 사는 친척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거주 친척으로부터의 지원은 현금보다는 주로 식량과 옷 등의 물품지원이었으며 장기간 지속되기보다는 식량난이 가장 심각했던 일정기간의 지원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북한주민의 중국 거주 친척들이 대부분 연변지역의 조선족들이며 이들 역시 장기간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음의 예는 이와 같은 북·중 친족간 지원 실상을 잘 말해 주고 있다.

1996년만 해도 100명에서 200명에 달하는 조선족들이 매일 이 다리를 건너갔다. 그러나 1997년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50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1998년)는 단 34명만이 매일 이 다리를 건너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숫자의 감소는 북한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오는 것을 그만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예전과 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단지 중국측 친척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을 뿐이다. 방문교류의 감소는 조선족 친척들이 북한 친척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지쳐 더 이상 조선족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²⁹

기아로 인한 사망자 수와 관련해 북한당국은 22만 명이라고 발표

²⁸ 위의 글, p. 186에서 재인용.

²⁹ 나초스 지음, 황재옥 옮김, 『북한의 가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 99에서 재인용.

한바 있으나, 국내의 관련 단체 및 연구자들에 의한 아사자 추정치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수치는 사망자 추정방법과 이용자료, 추정대상과 기간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인 ‘(사)좋은 벗들’은 식량난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인 1995년 8월부터 1998년 7월 말까지 약 300만의 아사자가 발생하였고 수십만 명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고 발표한바 있다.³⁰ 북한에서 의사로 일했던 한 북한이탈주민도 약 200만 명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¹ 1997년에서 1998년에 걸쳐 역전에서 하루에 100여명 정도의 사망자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으며,³² 중국 거주 탈북난민들의 증언 자료집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드물지 않게 눈에 띈다. 그러나 북한의 기근 사망자 규모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을 평가한 후 보다 신뢰성 있는 방법을 통해 기근 사망자 수를 추정한 한 연구자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위기는 1994~2000년 간 유의미한 인구변화를 수반하는 기근으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기근으로 인해 좁게는 25~69만, 넓게는 25~117만 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³³

이와 같이 100만 명을 웃도는 북한주민의 사망 원인은 근본적으로

³⁰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 p. 29.

³¹ 채규익(전 ‘남포 고려병원’의사)의 증언, 통일부 자료.

³² 허경희, 2004년 4월 16일 면담.

³³ 연구자에 따르면 북한의 기근 발생시점은 1994년이며 최소한 1998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1999~2000년간에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기근이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북한의 사망률 수준은 1999~2000년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바, 실제로 2000년의 사망률은 1000명당 8.8로 1996년의 6.8을 훨씬 뛰어넘고 있으므로, 따라서 1996년 북한의 식량상황을 기근으로 정의해야만 한다면 1999~2000년의 식량상황 역시 기근으로 정의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 변화,” pp. 118-144 참조.

기아, 곧 굶주림에 있다. 그러나 사망률이 점차 급증추세를 나타내게 된 데에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함께 비위생적 식수, 물 부족, 비누 부족 등 불결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폐결핵, 파라티푸스,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등 각종 전염성 질병의 확산이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질병들은 현대의학으로 완치 가능한 것들이나 북한주민들은 영양부족, 기초 의약품 부족, 의료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식량난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사망 사례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나머지 가족의 생존을 돕기 위해 가출하여 객사, 식량 약탈 강도에 의한 살해,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며 보따리 장사를 하는 도중에 과로와 굶주림으로 인한 객사, 식량 및 땀감 구입 등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사망, 가족 일부 내지 가족동반 자살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동반자살 사례는 특기할 만하다. 한국 사회에서도 경제침체에 따른 극심한 생활고에 지친 한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지만 북한에서 자살은 일종의 반체제적 행위로 간주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탈북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 과정에서 한 가족의 일부가 자살한 사례는 물론 가족 모두가 동반자살한 사례도 이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조사결과를 통해 보면 사망인구 가운데는 60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과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사망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³⁴ 탈북난민들은 이들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대

³⁴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 p. 32.

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소화기능이 약한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풀뿌리를 넣어 만든 죽이나 송기떡 등 고섬유질 대체식품을 과식함으로써 극심한 소화불량에 걸려 사망했기 때문이다. 둘째,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손자·손녀의 생존을 위해 의도적으로 절식 내지 금식을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노인들과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들의 굶주림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북한주민은 영양실조로 인해 “아이를 낳아도 기를 여력이 없는 어머니들이 길가나 역대합실, 장마당 앞에 아이를 버리는 일이 많아 1996~97년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성은 공민증과 여행증이 있어야만 역 기다림 칸에 들여놓는 질서까지 나왔었다”³⁵고 한다. 넷째, 임산부들이 영양부족으로 인해 유산하거나, 또는 영·유아들을 먹이지 못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2. 사회적 파급현상

가. 비공식경제의 활성화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심화된 식량난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난은 공식경제의 침체와 이에 따른 비공식경제³⁶의 활성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텃밭 및 소토지 경작, 장마당 등 비공식부문의 활성화는 국

³⁵ 권혁, 『고난의 강행군』, p. 168.

³⁶ 여기에서 비공식경제는 경제활동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직·간접적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생계와 관련된 경제행위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북한 경제의 비공식부문 내지 제2경제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3-8 참조.

가공급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식부문을 대신하여 소비재 부족, 특히 식량, 의복 등 비내구 소비재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활성화된 경제에서의 비공식부문의 실태는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³⁷

첫째, 소상품 생산양식과 소자본에 의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외형적으로 나타났다. 개인 미(리)용실·식당 개업, 리어카를 동원한 짐꾼일의 영업행위, 생일잔치나 환갑잔치에 샷일이나 품팔이 임노동 제공, 식당이나 미(리)용실 등에서의 소규모(13인정도) 노동자 고용, 자영사업 행위 등이 그것이다. 또한 외화벌이 사업이 확산됨에 따라 급전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밀무역자, 기관·기업소의 외화벌이 종사자들의 수요에 따라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북송교포나 화교 등을 중심으로 고리 사채업자가 등장하였으며, 빌린 돈을 못 갚아 집이나 가구를 빼앗기게 되는 등 사적 신용시장도 등장하였다. 당국의 묵인하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개인들의 상행위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로 점차 공식화되는 추세를 나타내며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개인영업의 경우 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은 음식업이며 이는 개인식당이 가격은 비싸지만 음식 맛이나 서비스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업소보다 뛰어나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³⁸ 개인들의 식당영업은 ‘개인식당’ 형태와 ‘음

³⁷ 강정구·법륜 엮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 pp. 36-42; 박형중, 『'90년대 북한경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17-24;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세미나 발표문 (2004.5) 참조.

³⁸ 개인 식당영업과 관련해서는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pp. 5-6 참조.

식판매소' 형태로 이루어진다. 개인식당은 별도의 간판을 설치하지 않고 가정집을 식당처럼 꾸며 놓고 국밥과 국수, 술 등을 판매한다. 음식판매소는 빵·떡·술 등을 대량으로 생산한 후 주민들에게 판매한다. 음식판매소는 개인 가정집 때문에 '떡집, 빵집, 두부'라는 글자를 적어 놓고 장사를 하는데 장마당(시장)에서 음식을 파는 장사꾼들도 이러한 집에서 음식을 도매로 구입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또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전역에 청량음료나 군고구마, 군밤 등을 파는 매대와 점포가 증가하였으며, 개인 서비스업 및 중개업의 조직화 등 사적인 상업 활동 범위도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일반주민이 국가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식당, 호텔, 상점 및 당구장과 가라오케 등을 개인업소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규모 가족 경영사업이나 공동경영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생산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한다.³⁹

둘째, 경제운용기제로서의 상품시장이 북한사회에서 일상화되었다. 열흘에 한 번 열리던 농민시장이 1990년대 초반 이래 상설시장화 되어갔으며 이는 국영 수매재생산점, 8·3인민소비품직매점, 가내수공업, 개인부업 등 공적 배급망까지 포괄하고 북한지역 전체로 확산되어 생필품의 조달처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래 점차 장마당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었으며 2003년 3월에는 시장이 공식화되었는바, 장마당이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되기에 이른다. 북한당국은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포함한 북한 전 지역에 걸쳐 대규모 시장을 건설하고 장사를 하고자 하는 주

³⁹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p. 6.

민들에게 규격화된 매대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으며, 2004년 4월 현재 평양에만 42개의 종합시장이 개설되었다.⁴⁰ 시장에서는 군수품과 마약류 등 일부 금지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품을 포함해 거의 모든 품목이 판매되고 있으며 기업소·협동단체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텃밭과 폐기밭 및 소상품 생산양식이 장려되어 사적 이윤추구가 성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협동농장원들은 농장일보다 개인 텃밭 경작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또한 텃밭, 폐기밭 등에서 생산한 식량과 식료품 등에 대한 사적거래도 급증하였다.

넷째, 비공식부문의 활성화는 부정적 양태로도 이루어졌는바, 국가 계획부문에서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절취행위, 공급 부족 재화에 대한 투기 및 비합법적 수취와 판매, 국유자산의 절도와 판매, 재화 및 화폐의 불법 생산 또는 취득, 금지품목(음란물, 불온 출판물 등)의 암거래, 북한의 특산품을 중국의 생필품과 교환하는 국경지대에서의 밀무역 등이 그것이다.

식량난의 과정에서 북한경제의 비공식부문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주요 계기를 이루었던 것은 1998년 9월의 북한헌법 개정이다.⁴¹ 북한은 경제부문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해 개인소유의 주체를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확대하였으며(제24조), 이로써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노약자, 가정주부, 연금생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주민의 개인소유가 가능해졌고 텃밭 경작이 합법화되었다. 또한 개인소유의 대상에 텃

⁴⁰ 북한당국은 시·군별로 1~2개씩 시장을 개설해 북한전역에 약 300여 개의 종합시장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p. 4.

⁴¹ 최수영 외, 『북한헌법 개정에 따른 경제부문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8-06) 참조.

밭과 개인부업에서 나오는 생산물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소득)을 개인소유로 인정하였는바(제24조), 이는 개인상업 등과 같은 교환, 서비스 및 유통부문에서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확대를 허용하는 조치였다. 이에 따라 단순 부업 차원이 아닌 영리목적의 개인수공업, 자영업, 서비스업 등 각종 사적 경제활동이 증대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대상에서 부림집승, 건물 등을 삭제하였는바(제22조), 이는 곧 가축, 주택, 기타 건축물 등에 대한 개인소유의 묵시적 허용을 뜻하며, 식량난,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법적인 가축 사육 및 주택 거래 등의 양성화 근거이기도 하였다.

나. 사회질서의 혼란 및 사회통제 이완

굶주림의 고통으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고 폭력, 절도, 살해 등의 일탈행위가 나타나며, 더욱 비참하게는 가족이 붕괴되는 현상까지 발생한다. 또한 범죄에 대한 저항은 점점 약해지면서 무력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기아로 상처받은 사회’의 모습이다.⁴²

탈북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식량난이 심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북한사회도 ‘기아로 상처받은 사회’의 모습과 유사하다. 탈북난민들은 말하기를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식량공급은 중단되고 도둑이 매우 활발하였고 사람을 죽이고 뺏어가는 물건이 많았으며 아부와 아침이 활개를 치고 권세와 권력이 판을 쳤다. 역전마다 거리마다 거지가 배고파 쓰러져 자고 죽어서 내가고 거리에는 밥 빌

⁴² 나초스 지음, 황재욱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 302에서 재인용.

러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한다. 이는 곧 식량난의 악화로 인해 종래 주민통제의 효율적 기제로 작동해 온 배급제가 붕괴되고 생계문제 해결을 단위가족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사회적 일탈 내지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점차 증대되었음을 뜻한다. 예를 들면 소속직장 및 단체의 학습, 생활총화 등에 불참하는 조직 이탈,⁴³ 노동자의 직장이탈과 무단결근, 당·정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뇌물수수,⁴⁴ 관료의 직권남용, 국가소유의 물자유용 및 거래,⁴⁵ 허위진단서 발급 및 개인의료영업 등의 불법 의료행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의 암거래, 중국 상인들과의 국경 밀무역, 농민들의 식량 전용 내지 국가수매 기피, 절도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일탈 내지 비사회주의적 행위의 근원은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으로 구성되는 가격의 이중구조화에서 찾아질 수 있으며 특히 식량 가격의 이중구조화로 인해 나타난 비사회주의적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농민들이 식량의 국가수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북한에서 식량의 사적거래는 주로 도시지역 주민과 농촌지역 주민간의 물물거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식량난의 심화와 함께 농민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곳에서의 식량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

⁴³ 당 생활총화에 불참하는 경우 출당, 비판 등의 처벌이 따랐으나 1998년에 들어서 는 당원들도 장사하기에 바빠 당 생활총화에 나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 비서가 당원들을 찾아다니며 당비를 받아가고 상부에 개별보고 하는 정도였다고도 한다. 최승희, 2004년 4월 29일 면담.

⁴⁴ 예를 들면 여행허가증 발급, 상급학교 진학, 직장 재배치와 진급, 주택배정, 건강진단서 발급 등 이권행위와 암시장 거래, 무단 이동,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의 뇌물수수가 이루어진다.

⁴⁵ 한 예로 제약공장은 물론 의사와 약사들이 약품의 공급·유통 단계마다 약품을 빼돌려 장마당 또는 친지에게 판매하는 등 조달약품 횡령행위도 있었다. 채규익(전 ‘남포 고려병원’의사)의 증언, 통일부 자료; 권혁, 『고난의 강행군』, pp. 231-232 참조.

됨에 따라 농민들은 국가가 수매할 식량을 몰래 저장해 두었다가 이를 적기에 농민시장에 내다 팔아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른바 ‘배급비리’ 역시 식량 가격의 이중구조화로 인해 나타나는 일탈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배급비리’에 관해서 한 중국 거주 탈북난민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배급비리의 가장 흔한 방법이 지도일꾼이 다급한 일반 인민들에게서 배급표를 1킬로그램 당 10전 정도의 가격으로 사 모은다. 그래서 배급소에 쌀이 들어오면 우선 배급을 받고 그 배급받은 식량을 친척을 통해서 장마당에 내다 팔아 500~800배의 이윤을 얻는다.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이럴 경우 배급표상으로는 모든 인민들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장마당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⁴⁶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도둑·소매치기·강도 등의 일탈행위도 많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장마당에서 꽃제비들이 음식을 덮쳐 먹거나 소매치기를 하며 그 대상은 대부분이 장보러 오는 여자들이나 장사하는 여자들, 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절도는 일반주민들의 돈이나 식량을 비롯한 물품을 훔치는 행위와 국가소유의 물자를 훔치는 행위로 이루어지며,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절도는 통상 ‘조절(調節)’이라고 말한다. 이른바 ‘조절’사업의 대상은 일반주민들에게 있어 국가재산이라고 인식되어 온 공장과 광산, 농촌의 모든 기계부품과 생산품, 자재, 원료, 알곡, 채소 등이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재산을 횡령 내지 ‘조절’하는 것은 엄연한 생존수단으로 인정되며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고 현명한 사람으로 인

⁴⁶ 좋은벗들 엮음,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p. 78.

식되고 있다고 한다.⁴⁷

식량을 얻기 위한 구걸행위도 급증하였는바,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993년 이전의 탈북주민들 가운데서는 6.9%만이 구걸을 했으나 1994년 이후의 탈북주민들 가운데서는 21.5%가 구걸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일탈 내지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적지 않게 있었음은 북한의 여성단체 ‘조선민주녀성동맹’(이하 여맹)의 기관지인 ‘조선녀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조선녀성’에는 식량난의 과정에서 여성들 사이에 일탈 내지 비사회주의적 경향이 확산, 심화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 초급여맹위원회에서 여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정형을 ‘개별진단’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 녀맹원들속에서는 부족점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녀맹조직에서는 녀맹원들의 결합을 부류별로 분석해보았다. 여기서 문제점은 저 하나의 리기만을 생각하면서 생활에서 이러저러한 비사회주의적경향이 발로되고있는것이였다.⁴⁹

라고 한다.

다음의 글에서는 여맹원들 사이에 개인이기주의로 인해 부업에만 몰두하거나, 가출하는 등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조직사상생활지도에 의해서도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⁴⁷ 김승철,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 양식과 마지막 희망』, pp. 36-42 참조.

⁴⁸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 148.

⁴⁹ “짜고드는 사업기풍,” 『조선녀성』 3호 (1999.3), p. 31.

사실 우리 초급녀맹위원회에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으로 생활이 좀 어려워지자 일부녀맹원들속에서는 제 하나 살아 나갈 궁리를 앞세우면서 건전하게 혁명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초급녀맹위원회는 초급단체별로 문제성 있는 녀맹원들을 부류별로 장악했다. 구체적으로 료해해 보니 3초급단체와 4초급단체를 비롯한 초급단체들의 일부 녀맹원들이 조직생활을 걸썬 대하며 바다에 나가 조개잡이나 터밭농사에 신경을 쓰는 현상이 있었으며 그전처럼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도 높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우기 3초급단체의 현동무는 별치 않은 문제로 가정을 버리고 들락날락하는 현상도 있었다. …이로부터 초급녀맹위원회는 …모두가 정규화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하지만 일반적장악과 통제만으로는 결합이 단꺼번에 극복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는 것 같더니 또 낯은 생활습성이 되살아 나 자유주의적요소도 발로되었다.⁵⁰

직장을 다니지 않는 30세 이상의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여맹을 비롯한 각종 근로단체의 조직생활에도 여성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직생활도 못해요. 굶어죽는데 조직생활 하겠어요? …옛날같이 통제하기 힘들어요. 옛날보다 많이 약화됐어요. 최근에는 많이 변질됐어요. …거기 사람들도 다 싫어해요. 검열 들어온다고 하면 책임자가 쓱쓱해서 내고, …조직생활 안 참여해 본적이 꽤 되었어요. 거기 사람들도 이제는 합리주의적으로 나가거든요. 웬만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러자 하는 거죠.⁵¹

아무리 힘들어도 조직생활은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여성들도 적

⁵⁰ “투쟁도 생활도 건전하게 혁명적으로,” 『조선녀성』 6호 (2000.6), p. 34.

⁵¹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 제도에 관한 연구,” p. 196에서 재인용.

지 않다. 특히 인민반장과 같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여성들과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여맹 조직생활에 충실한 다음에 부업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증언을 통해 보면 당 조직이나 그 외 다른 근로단체 조직에 비해 여맹 조직생활에 대한 통제가 덜했으며 따라서 여맹원들이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조직생활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여맹 조직은 가정주부들이 참여하는 거라서 그렇게 조직이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출맹을 안 주어요. 사회에 나와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에 입당하는 건데 출맹을 당하면 당에 입당을 못해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맹 조직은 집에서 노는 사람인데 출세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 조금 공간의 자유가, 여유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⁵²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식량난으로 인한 일반주민들의 고통을 보다 가중시킨 요인은 군인, 장마당안전원, 열차승무안전원 등에 의한 횡포였다고 한다.⁵³ 이 가운데 특히 군인들의 횡포는 이른바 선군사상·선군정치의 등장에 따른 이들의 권력·권한 강화와 경제난 악화 이후의 사회체제 이완에 따른 군의 직접적인 사회통제 부담으로 인해 심화되었으며, 특히 굶주림에 시달린 일반 사병들의 횡포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군인들은 민가에 침입해 가축을 잡아가지거나 돈, 또는 물건을 훔쳐가며, 장마당에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장사하는 여자들을 폭행하기도 한다. 또한 짐을 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리고 돈과 물건을 빼앗아 가지

⁵²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p. 194-195에서 재인용.

⁵³ 권혁, 『고난의 강행군』 참조.

고 달아나기도 하며, 열차 승객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열차에서는 군인들이 창문마다 지켜 서서 돈이나 물건을 받고 사람들을 올려 주고 있었다. 여행객들은 승강기에도 못 오르고 어쩔 수 없이 창문 앞에 앉은 군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 아니면 술, 담배를 주고 열차에 오르고 있었다.⁵⁴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시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제75조)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2001년도 UN에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서는 “여행규정’ 제6조에 따라 여행을 원하는 공민은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보고함으로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이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도 북한주민이 통행증명서 없이 장사 등을 위해 지역 이동을 하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는 열차안전원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벌금을 내거나 집결소에 끌려가 일정 기간 강제노동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심각한 폭행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통행증이 없이 승차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열차안전원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열차에서 쫓겨나 객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열차안전원의 횡포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벌금을 물지 못한다고 가는 도중에 아무 역에나 내려놓습니다. 아무 역에나 내리면 아들집이나 딸집이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가다가 굶어죽고 얼어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⁵⁵

⁵⁴ 위의 책, p. 224.

⁵⁵ 좋은벗들 엮음,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p. 51.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 이후 북한당국의 일반주민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인민반, 동사무소, 근로단체조직, 당 조직 등과 같은 기존의 조직보다는 국가보위부 지하망을 통한 감시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일종의 보위부 ‘앞잡이’에 의한 감시가 강화되었는바, 일정 지역 관할을 위해 파견된 보위부원이 그 지역의 인민반에 앞잡이를 두고 2~3일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해 왔다는 것이다.⁵⁶ 장마당에는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 청년동맹 불량소조, 9·27상무대, 시안전부 감찰과 소속 노동자 규찰대 등에서 나와 불량 행위와 화폐 장사, 단속 물건 거래 등과 같은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단속하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국경을 넘는 탈북자가 많아짐에 따라 무산, 회령, 온성 등 국경연선지대에서는 여행증 외에도 외출증을 소지해야 했다고 한다.⁵⁷ 그러나 이와 같이 감시 내지 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의 심화 과정에서 일탈 및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제대로 통제하지도 않았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금전 및 물품 등의 뇌물로 무마되었으며, 특히 식량문제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묵인되는 편이었다고 한다.

다. 가족구조의 변화

식량난의 악화로 인해 국가 주도의 생산·분배 시스템이 정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생계문제 해결을 단위 가족이 부담하게 된 이후, 초기에는 가족 구성원간 분업 및 협업을 통한 유대가 공고한 편이었다.

⁵⁶ 이금실, 2004년 4월 29일 면담.

⁵⁷ 유순음, 2004년 4월 29일 면담.

그러나 점차 가족간 분업 및 협업의 의의를 상실할 만큼 가족단위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됨에 따라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 조사결과에 나타난 가족해체의 비율을 보면 1993년 이전에 탈북한 조사대상자들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6.9%가 가족해체를 경험하였으나 1994년 이후에 탈북한 조사대상자들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20.0%가 가족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식량난 심화 과정에서 가족해체 현상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⁵⁸ 이를 입증하듯 중국 거주 한 탈북난민도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의 약 40%에 달하는 가정이 굶주림으로 붕괴되거나 식량을 찾아 마을을 떠나서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고 밝혔다.⁵⁹ 또한 1990년대 말 경에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떨어져 사는 부부가 전체의 30~40% 가량 되었다는 보고도 있다.⁶⁰

가족해체 현상은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아졌는바, 한 북한이탈여성에 의하면 가족해체는 1998년이 가장 정도가 심하였으며 당시 회령시 아파트가 거의 비어 버렸을 정도였다고 한다.⁶¹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해체는 그 성격에 따라 빈곤문제가 파생시킨 ‘가족문제’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전략’의 형태로 나타난다.⁶² 여기에서 전자는 빈곤문제가 가족에 초래하는 가장 극단적인 영향인 가족구성원의 사망 등에 의한

⁵⁸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 174.

⁵⁹ 나초스 지음, 황재욱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 105.

⁶⁰ 최명숙, “90년대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p. 12.

⁶¹ 최승희, 2004년 4월 29일 면담.

⁶² 최명숙, “90년대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p. 112 참조.

‘수동적인’ 가족해체이다. 후자는 더 이상 가족 내의 자원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족구성원이 살기 위해 각각 흩어지는 ‘능동적인’ 가족해체이다. 다시 말해서 수동적인 가족해체는 빈곤의 수동적 부산물로서 ‘가족문제’에 해당하고 능동적인 가족해체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가족전략’에 해당한다. 식량난으로 인해 발생한 북한의 가족해체 현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은 능동적형태의 가족해체인 가족전략의 구체적 내용들 가운데 하나인 ‘가족구조의 변화전략’이다.⁶³ 가족구조의 변화전략은 이동전략과 아동유기전략 등으로 구성되며 이 전략은 가족이 자체의 자원만으로 구조적 압력에 대응할 수 없을 때 가족의 규모를 줄이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통해 가족의 생존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이동전략은 가족의 생계유지 자체가 곤란할 때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여 부모의 부양부담을 덜면서도 그들의 임금이 가족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의미한다. 아동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거나 보호가 없는 상태로 내버려둠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수를 줄이거나 가족의 소비규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난의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가족해체 현상도 위와 같은 수동적인 형태와 능동적인 형태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다소 유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관점을 달리 하여 가족구성원이 의도하지 않은 가족 해체와 가족구성원의 일부, 또는 모두가 의도한 가족해체로 나누어 논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가족구성원이 의도하지 않은 가족해체는 곧 수동적인 형태에 해당하며 가족구

⁶³ 최명숙, “90년대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pp. 17, 20-21 참조.

성원의 일부, 또는 모두가 의도한 가족해체는 능동적인 형태에 해당 하는 것이라 하겠다.

가족구성원이 의도하지 않은 가족해체는 무엇보다도 식량난에 따른 기아와 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 연이어 사망함으로써 초래되거나, 아니면 가족구성원 일부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나머지 가족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선후로 남편과 둘째 아들이 끝내 병으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남은 우리 네 식구는 집을 판 돈을 나누어 가지고 두 자식과 시동생을 길주에 있는 시누이 집에 찾아가 보게 하고 저는 중국에 있는 오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은 끝내 이렇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⁶⁴

가족구성원이 의도하지 않은 가족해체는 가족구성원의 일부가 행방불명으로 처리됨으로써 초래되기도 하였다. 특히 가족부양을 책임진 여성이 식량구입을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뜻하지 않게 북한 거주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장사를 떠나 본의 아니게 장기간 집을 비운 동안에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어 결국 행방불명자로 처리되면 이후 남편의 사망, 자녀들의 가출이 이어지면서 가족해체가 발생하였다. 중국 거주 탈북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6.0%가 식량난으로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답하였는바,⁶⁵ 가족구성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⁶⁴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 175에서 재인용.

⁶⁵ 좋은벗들, 『북한주민의 북한사회·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서울: 좋은벗들, 2000), pp. 32-33.

가족구성원의 일부, 또는 모두가 의도한 가족해체로는 먼저 가족 단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례를 들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어머님과 안해, 딸 이렇게 네 식구가 단란하게 지냈다. 하지만 몇 해째 배고픈 고생을 하다못해 나는 안해보고, 우리 인제 더는 이렇게 견딜 수 없으니 당신은 당신대로 갈 데를 가고 아이는 어머님한테 맡기고 나는 중국으로 탈출하겠다고 말하고 이튿날 집식구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⁶⁶

부부의 이혼도 가족구성원이 의도한 가족해체의 한 원인이라 하겠다. 식량난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가 장사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 다른 지역을 떠돌거나, 중국 등 제3국으로 탈북 하여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남아 있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또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한 이혼 등이 있다. 특히 식량난이 심화된 ‘고난의 행군기간’에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한 여성에 의한 이혼제기가 적지 않았으며, 이혼율이 급증함에 따라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이혼은 허락하되 이혼을 제기한 쪽에 벌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억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⁶⁷ 다음의 예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제기한

⁶⁶ 좋은벗들 엮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p. 128.

⁶⁷ 김○옥, 2004년 1월 9일 면담; 그러나 일부 북한이탈여성들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남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한 여성들의 이혼제기는 드문 편이었으며 이혼도 잘 되지 않았으므로 아예 여성들이 가출하여 중국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금실, 2004년 4월 29일 면담; 또한 오히려 여자가 생활력이 없다고 이혼을 제기 하는 남자가 많은 편이었으며 남자들은 이혼 후에 돈 잘 버는 여자와 재혼한다고 말하는 북한이탈여성도 있다. 허경희, 2004년 4월 16일 면담.

여성의 사례이다.

내 힘으로 자식 셋을 먹여 살리기는 정말로 힘들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갈라지자고 말했다. …남편은 직장에서 배급도 로임도 주지 않자 출근도 않고 방구석에 앉아 담배만 피워댔다. 집에 들어가면 담배와 석유냄새로 숨이 탁 막혔고 이런 남편이 보기 싫었다. 그러던 중 나는 리혼을 제기했고 남편은 할 수 없이 승낙하였다. 하여 딸 둘은 내가, 아들은 남편이 데리고 살기로 했다.⁶⁸

부부의 정식 이혼 외에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간 부부가 떨어져 생활하는 동안에 어느 일방이 새로운 배우자를 선택하여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가출함으로써 한 가족이 해체된 사례도 적지 않다.

식량난이 초래한 의도적 가족해체는 극단적 행위인 가족 동반자살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였다.⁶⁹ 대부분의 동반자살은 주로 어린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들에 의해 행해졌는바, 생계유지에 지쳐 죽음을 계획한 부모들이 자신들의 사후에 어린자녀들이 ‘꽃제비’로 유랑생활 할 것을 우려해 동반자살을 결행한다는 것이다. 관련 증언에 따르면, 1997년 6월경에 함흥시 병원의 내과 의사 가족 6명이 “입밥과 명태국”에 약을 넣어 먹고 동반자살한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⁷⁰

식량난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모에 의한 자녀유기도 의도적 가족해

⁶⁸ 사단법인 좋은벗들 엮음, 『사람답게 살고싶소: 북한난민 1,855명 증언』, pp. 36-37.

⁶⁹ 기아로 인한 동반자살은 1942년 중국의 기근 때에도 발생하였다. 나초스 지음, 황재옥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 112.

⁷⁰ 위의 책, p. 67.

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 부모에 의한 자녀유기는 무엇보다도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후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식량난이 겹치면서 가정이 함께 살면 무리죽음을 당하기에 서로 울면서 이혼 아닌 이혼을 하는 일들이 무척 많아졌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⁷¹

세 살 먹은 남자아이와 그의 네 살짜리 누나, …그들은 이름과 나이가 적힌 종이를 각자의 목에 걸고 있었다. 그들 부모는 자신들보다 형편이 나은 상인이 아이들을 데려가 거두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시장에 내다 버린 것이었다.⁷²

또한 부모의 자녀유기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으로의 탈북을 도모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녀로 인한 생활상 내지 안 전상의 부담을 이유로도 발생하였다. 이를 테면 더 이상의 생계유지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오직 살길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것뿐이라는 판단 아래 중국 생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아이를 버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아이의 울음소리 등으로 인한 국경경비대의 추적을 우려하여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도 적지 않았다.

남편과 사별한 후 돌이 채 되지 않은 자녀를 데리고 동무를 따라 중국으로 넘어가던 중에 ‘그런데 얘기는 배가 고프다고 울기만 하는데 젖도 나지 않고 암죽도 없기에 우는 아이를 업고 보초선을 피해 도강할 수 없게 되었다. 할 수 없이 독한 마음을 먹고 얘기를

⁷¹ 권혁, 『고난의 강행군』, p. 168.

⁷² 나초스 지음, 황재옥 옮김, 『북한의 기야: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 104에서 재인용.

한 집 문 앞에 갖다놓고 도강하여 중국에 왔다.⁷³

매우 드물게 나타난 것이기는 하나 부모가 자녀의 생존을 위해 자녀를 인신매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웃집에서는 너무나 굶고 허덕이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 궁리 끝에 5세 난 아들을 장에 나가 팔려고 하였다. 굶어죽을 바엔 차라리 잘 사는 집에 가면 그래도 살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중국 손님 한 분이 지나가다 보고 참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에 200원 주고 주인과 가만히 몇 마디 상의하고 가버렸다. 아마 저녁에 기회를 봐서 중국 땅에 데려가 달라한 것 같다.⁷⁴

식량난이 초래한 아동유기는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행위로도 나타났으며, 이는 북한 내에서보다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예로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 3명을 데리고 중국으로 넘어와 아이 셋을 각각 한족과 조선족에게 주어 버린 여성의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이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 같아 중국으로 넘어가 해산한 후 즉시 남에게 주어버린 여성의 사례도 있다.⁷⁵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구조의 변화전략으로서의 아동유기는 북한만의 현상이 아니다. 아동유기는 기근을 겪는 다른 빈곤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수단 남쪽 지방에 거주하는 부족은 기아에 대처하기 위한 작동

⁷³ 좋은벗들 엮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p. 104.

⁷⁴ 위의 책, p. 158.

⁷⁵ 위의 책, pp. 116-117.

체계로서 10대 소년을 내다버렸다. 이 지역은 소년이 장가갈 때 전통적으로 혼례지참금 형식으로 소를 신부측에 주어야 하는 전통이 있다. 결과적으로 딸을 가진 신부측은 가족재산이 늘어나는 반면 아들을 가진 신랑측은 소를 잃게 되는 재산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경제적 계산법은 위기가 닥쳤을 때 생존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된다.⁷⁶

는 것이다.

가족부양을 책임진 여성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간 예정으로 국경을 넘었다가 아예 중국에 정착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초래하거나 주부의 의도적 가출로 인해 가족해체를 초래한 사례들도 적지 않다. 특히 주부의 가출 현상은 주로 20·30대 젊은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나며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 남편의 폭력,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안해와 아들, 그렇게 세 식구가 살았다. …살기가 점점 힘들어 지자 안해는 나와 어린 아들을 버리고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나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쌀 한 톨도 없는데다가 안해까지 달아나고 없으니 기가 막혔다.⁷⁷

피나게 뛰면서 벌어도 차려지는 것은 죽물도 안 되니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중국으로 도망쳐 왔다. …내가 조선에 있을 때 남편이라는 사람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나를 두들겨 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⁷⁸

우리 구역에서는 남성들을 ‘멍멍이’라고 합니다. 여성보다 악이

⁷⁶ 나초스 지음, 황재옥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 102.

⁷⁷ 사단법인 좋은벗들 엮음, 『사람답게 살고싶소: 북한난민 1,855명 증언』, p. 37.

⁷⁸ 위의 책, pp. 40-41.

없고 살 의욕이 약하여 집 지키는 ‘멍멍이’라 부릅니다. 여성들은 이런 멍청이 ‘멍멍이’를 먹일 수 없으므로 여성은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살 길을 떠나갑니다.⁷⁹

한 북한이탈여성에 의하면 1990년대 말 이래 주부의 가출 사례가 급증하였으며 가출한 주부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거나, 역전에서 매춘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탈북하여 중국조선족이나 한족과 매매혼 내지 사실혼의 관계를 맺고 살았다고 한다.⁸⁰

라. 주민의식 변화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식량구입을 위한 주민 이동량의 급증에 따른 주민 상호간 정보유통의 증대, 장마당의 활성화에 따른 주민 간 상호접촉 및 정보교환의 증대, 그리고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는 199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과 1980년대 말 이래 북한의 부분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문물의 침투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식량구입을 위한 주민 이동량의 급증과 장마당의 활성화는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가속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경제난으로 인한 국가공급체계의 붕괴와 경제에서의 비공식부문의 확산, 그리고 부분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문물의 침투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보다는 개인과 가족위주의 가치관, 정치·사상보다는 돈과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으며 식량구입을 위한 주

⁷⁹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 175에서 재인용.

⁸⁰ 최승희, 2004년 4월 29일 면담.

민 이동량의 급증과 장마당의 활성화는 이러한 가치관의 확산, 심화에 속도를 더했다는 것이다.⁸¹ 또한 이와 같은 가치관 변화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식량난의 심화 과정에서 북한 전역으로 확산된 사회적 일탈 내지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일탈 내지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증가되었으며, 경제에서의 비공식부문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속도와 폭을 더해갔다. 국가생산·공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종래 국가공급에 의존해 오던 일반주민들 사이에 조직·직장이탈, 뇌물수수, 국가물자 절취·거래, 불법 의료행위, 암거래, 밀무역, 농민들의 식량 전용 및 사적거래 등이 성행하였으며, 텃밭, 부업밭, 폐기밭(소토지) 등의 사적경작과 개인부업·서비스업이 확대되었고, 절도와 소매치기 등의 현상이 날로 증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이와 같은 추세는 기존 사회질서의 해체라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이에 대해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는바, 북한당국은 사상교양을 비롯한 다양한 단속 및 감시체계를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식량난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오히려 이러한 행위들을 인정, 수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절

⁸¹ 이와 같은 북한주민들의 가치관 변화는 단순히 사회적 병리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변화의 선행지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민들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중시의 의식변화는 제2경제를 통해 경제적 실용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대부분 발현되고 있으며, 따라서 제2경제의 역할이 점차 계획부문을 대체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p. 59.

대적인 부족량을 채우고 생존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인식된 것이다.⁸² 그러나 일반주민들의 이와 같은 인식이 모든 일탈 내지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인·열차안전원·장마당안전원 등의 횡포, 또는 당·정관료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당·정·군 관계자 등에 대한 뇌물 상납을 통한 사회 공적 연결망과의 비공식관계 형성은 생존 차원에서의 부득이한 행위로서 인식한다.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공장, 기업소가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여성들이 가족부양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으며, 가족부양을 위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가운데 하나가 성을 파는 일, 곧 매춘이다. 북한의 여성관련 가치지향에 따르면 매춘은 용납될 수 없는 일탈행위이다.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내지 보수적 통념이 확산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는 여성의 순결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바, 여성의 인간적 미는 “어느 남자가 사귀고 싶어하더라 말만 들어도 처녀의 순결을 잃은 것처럼 여기며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순진성”⁸³이라고 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식량난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가족부양을 떠맡은 여성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졌다고 한다. 생계유지를 위한 여성의 매춘에 대해 비난하

⁸² 계획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이차 경제가 일상화됨으로써 위법을 당연시하게 되고 거짓말이나 부당한 수단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데, 시장영역의 부상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관념과 행태들은 당연히 일정 부분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정세진, “90년대 북한 경제난의 정치사회적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40집 1호, p. 288.

⁸³ 김해월, “우리시대 여성들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조선문학』 (1991.7), p. 67.

기보다는 점차 이해하고 동정하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한 매춘으로 인한 미혼모가 적지 않으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매춘으로 인해 미혼모가 된 여성에 대해서는 크게 비난하지 않는다고 한다.

(장마당)의 음식 매대 앞에 남자가 나타나면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한 장사꾼 여인들이 서로 남자의 팔을 잡고 자기 매대로 들어가지고 승벽내기로 끝었다. 아마 자기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살아가자니 정조고 뭐고 상관없이 음식과 몸을 섞어 파는 그들의 모습은 혐오스럽다기보다 측은한 마음을 불러 일으켰다.⁸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들을 천시하는 것은 북한의 보수적인 사회통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 출산 및 양육, 가족 부양 등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여성들이 독신을 선호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이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한다.

체제가 정치적 순응과 물질적 만족을 교환하는 일종의 사회계약하의 의무이행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점점 무능해질 때 시민들은 그 수요충족을 위해 이차 경제에 의존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의 전환효과는 이중 규범적 시민, 즉 일상생활 속에서는 정직하고 순응적인 시민이지만 이차경제와 관련되어서는 그것의 불문율에 의해 살아가는 시민을 낳는다고 한다.⁸⁵ 다시 말해서 이차경제라는 존재 자체가 ‘이차 도덕성(shadow morality)’과 ‘이차 적법성(shadow

⁸⁴ 권혁, 『고난의 강행군』, p. 34.

⁸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세진, “90년대 북한 경제난의 정치사회적 함의,” pp. 287-288 참조.

legality)’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생성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적 경제행위들은 범죄 집단뿐만 아니라 이차 경제에서 적극적인 모든 다른 이들에 의해서도 수행되는바, 따라서 기존의 도덕적 경계선이 확장되어 ‘이차 도덕성’도 일반적으로 수용되게 된다고 한다. 위에서와 같은 사회일탈 내지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식량난이 북한 여성에게 미친 영향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체제이행 과정에서의 경제위기로 인한 일차적 피해자가 여성이었듯이 1990년대를 통한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일차적 희생자도 여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위기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시장개방과 그로 인한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제위기가 북한의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은 상당한 차별성을 띠 수밖에 없으며, 그 희생의 내용이 동구 사회주의의 경우와 일정정도 차이가 있다.⁸⁶ 단적으로 말해서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은 북한여성들의 삶의 환경을 보다 더 열악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여성의 열악한 삶의 환경과 삶의 저하는 과도한 노동부담, 성폭력의 심화와 매춘행위 증가, 건강 악화,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 강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⁸⁶ 순경, “토론요지Ⅱ,” 민주평통 북한연구회·(사)좋은벗들, 『북한여성의 삶·꿈·恨』, pp. 32-35.

1. 노동부담 증대

북한이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전통적인 부덕을 지닌 주부로서의 역할과 사회주의건설에의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혁명가적인 역할이며, 이로써 북한여성들은 사회주의 건설현장으로의 조직 동원과 가사전담이라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북한은 정권 창립 이전부터 여성들로 하여금 가사전담이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못 박고 동시에 건국사업에의 적극 참여를 통한 남녀평등 구현을 내세워 여성 노력동원을 합리화시키었는바, 이는 1946년 김일성의 한 연설을 통해서도 잘 엿볼 수 있다.

물론 녀성들이 가정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하여 녀성들이 가정일에만 매달려 나라일에서 제외되어서는 참말로 남성들과 평등해질수 없는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가정살림을 알뜰히 꾸릴 뿐 아니라 직접 건국사업에 로력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⁸⁷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전통적 주부로서의 역할과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병행해 나가는 데 따른 북한여성의 이중 노동부담은 보다 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조치들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함에 따라 북한 여성들이 과도한 노동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가사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가족부양을 떠맡은 여성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또는 장사

⁸⁷ 김일성, “녀성동맹의 금후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1946.1~1946.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를 하기 위해 장거리를 오랜 시간 걸으며,⁸⁸ 대체식품 마련을 위해 산과들에 나가 산나물, 풀뿌리, 나무껍질 등을 채취하며, 산비탈을 개간하여 폐기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경작한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밭은 단순히 황무지를 농지로 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산비탈을 깎아 완전히 땅을 새로 개척해야 하는 일로 힘든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심하면 평균 30도~60도 이상의 비탈진 산기슭에 올라 밭을 일구었다. 원래 야산이기에 각종 나무와 거친 풀들을 베어내야 한다. 땅에 박혀있는 돌덩어리들을 거두어내고 바위를 치워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단지 낡은 옛날식 연장 몇 개와 맨 손으로 일군다. …물을 끌어올 관개시설이 없기 때문에 산비탈에서 다시 가까운 강이나 저수지로 내려가 일일이 직접 물을 길어 와야 한다. 만성적으로 굶주린 상태에서 땅을 개간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⁸⁹

북한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은 전력난으로 인해 가중되기도 하였는바, 수도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을 길어 날라야 했으며, 특히 고층아파트 입주자들은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아 20~30층을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 날라야 하는 등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또한 북한사회에서도 가족 내의 노인이나 병약자를 돌보는 일, 그리고 가족 내의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과 같은 복지기능은 사회에서 해결되기보다는 가족 내에서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할 때,⁹⁰ 식

⁸⁸ 장마당 등 일정한 장소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대략 40%이고 나머지 60%는 배낭을 메고 시골로, 타지방으로 다니면서 장사를 하며, 열차편을 이용하기도 하나, 여행중 명서 발급의 어려움과 지나치게 많은 열차이용객들로 인한 탑승의 어려움 때문에 몇 백리 길을 걸어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림금숙, “90년대 이후 조선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참여의 변화,” p. 24.

⁸⁹ (사)좋은벗들 엮음,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 p. 63.

⁹⁰ 김경희, “통일한국의 양성평등한 복지구현을 위하여: 남북한 여성복지 비교,” 미래

량난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역할은 여성들의 가사노동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경제난과 함께 실직하여 가정으로 돌아온 기혼여성들은 가사노동 외에도 인민반에서 조직하는 각종 무보수노동(위생청결, 협동농장 지원 등)에 무조건 동원되었으며, 이로써 여성들의 이중 노동부담을 더해 주었다.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62조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의 개정헌법 제77조에서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라고 명시하여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이로써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로 인해 가사노동의 사회화,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소 내지 약화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요약하건대 이와 같이 경제난의 과정에서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소되고 가정에서 가사 및 양육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북한여성들은 과도한 노동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인력연구센터 편, 『여성이 만드는 통일한국의 미래』 (서울: 생각의 나무, 2001), p. 168, 김영란, “북한여성의 사회복지정책연구,” 『지역학논집』 제5집, p. 59에서 재인용.

2. 성폭력의 심화와 성의 도구화

가. 성폭력의 심화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여기에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아내 구타, 인신매매, 강제 매춘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인 폭력들이 포함된다. 심지어는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것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된다.⁹¹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성폭력은 그 사회의 성문화 안에서 사회화된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해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상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사회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아내 구타 등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남성위주의 성에 대한 그릇된 통념과 여성에 대한 경직된 순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으며, 학교 및 사회에서의 성교육 부재에도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보다 심화되었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와 강간 등의 성폭행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제2차 국가인권보고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의에서 북한대표는 북한에서 여성매매는 철저히 철폐되었으며, 지난 50여 년 동안 여성매매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⁹¹ 김원홍 외, 『개정 오늘의 여성학』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pp. 292-293.

으로써 여성인신매매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여성 인신매매란 북한의 법·제도와 전혀 일치할 수 없는 현상이며 “국경지대에서 무슨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성매매라는 것은 북한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여성 인신매매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당국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여성의 인신매매 실태는 중국 거주 탈북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에 거주하는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지역의 유민 중 여성 비율이 75.5%를 차지하며, 탈북유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불법결혼을 하거나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 결혼형태로 살아가고 있다.⁹² 또한 여기에서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아니라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중국 거주 탈북난민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인신매매 조직이 여성들의 탈북과정에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탈북난민 여성 응답자들은 현재의 남편과 함께 살게 된 이유를 ‘북에서 넘어온 후 붙잡혀 팔려온 경우’(33.2%), ‘갈 곳이 없을 때 중국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소개’(26.7%), ‘중국으로 넘어온 후 스스로 현재의 남편을 알게 되어 서’(8.4%) 등의 순으로 답하고 있다.⁹³

⁹² 좋은벗들 엮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p. 14.

⁹³ 1999년 7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

북한여성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인신매매와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내에서는 주로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가 이루어진다. 중국의 조선족 중간매개자와 북한인 중간매개자 사이의 거래에 의해 북한여성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국으로 팔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내에서도 조직적인 여성 인신매매단에 의한 여성 밀거래가 적지 않으며, 인신매매단은 남편이 있는 기혼여성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팔아넘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꺼번에 한 무리가 닥쳐 들어와서 남편이고 그집 식구들이고 몽땅 이케 붙잡아 놓는단 말입니다. 대개 손에 칼 들고 들어와서 딱 붙잡고 이케 세워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 보는 데서 자기 처가 뺏겨가도 나서지 못한다 말입니다.⁹⁴

또한 인신매매단은 북한여성들이 도강하는 강변에서부터 그들이 대다수 살고 있는 전역에 포위해 있다가 여성들을 붙잡아 가는 경우가 많으며,⁹⁵ 한 가족 모두가 범행에 가담하여 인신매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⁹⁶ 중국 내에서도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와 함께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인신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를 테면 탈북한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유인한 후 본인 모르게 조선족, 중국 한족 등에게 팔아넘기거나, 중국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 인신매매단

북여성 202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이다. 문순재 외, “북한여성들의 탈북 동기와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서울: 대한가정학회, 2000), p. 147.

⁹⁴ 김태현 · 노치영,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p. 105.

⁹⁵ 위의 책, p. 104.

⁹⁶ 심○혁, 2003년 11월 3일 면담

에 알선하여 여성들을 팔아넘기며, 일단의 인신매매조직이 탈북여성을 강제로 납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탈북하여 중국 한족과 살면서 북한과 중국을 왕래하며 여성을 유인하여 인신매매를 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인신매매당한 여성의 사례도 있다.

어떤 사나이가 청들기를 저하고 살면서 조선으로 드나들면서 처녀들을 데려 오며는 1명당 500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좋은 돈벌이를 어찌 하지 않겠느냐고 또 어린 아이들과 남편을 살구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물고기 장사하는 채하면서 인신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죄명은 탄로되어 다시는 조선 땅에 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나와 살던 그 중국 남편은 …저도 몰래 저를 3천원에 이름 모를 곳에 팔았습니다.⁹⁷

한 연구자에 따르면 “식량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 구성원 중 여성을 매매한 사례들은 18~19세기의 유럽과 20세기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기아라는 위기발생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며, “북한 가정에서 먹을 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흔히 목격되는 것은 딸과 부인을 ‘인신매매자’에게 파는 것”⁹⁸이라고 한다. 실제로도 북한의 식량난 과정에서 부모가 딸을 팔아넘기거나 여성 본인이 원해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 증언 자료집들을 통해 보면, 부모가 딸을 매매하려는 데 대해 당사자인 딸들은 대체적으로 순응하는 편이다. 이들은 식량사정의 절박함과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며 자신이 매매되는 것에 대해 저항

⁹⁷ 노옥재, “북한 식량난 속의 ‘여성’의 삶과 인권,” p. 18에서 재인용.

⁹⁸ 나초스 지음, 황재욱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 105.

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스스로 자신이 매매되기를 청하거나, 탈북 후 중국생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매매혼을 청하기도 한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가서 소개하는 사람에게 조선돈 10,000원을 받고 판 거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⁹⁹

잘 사는 집에 시집가서 어머니와 오빠를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니 신심이 생겨 나는 당장 장사꾼 아주머니에게 찾아가 나도 같 생각이 있으니 데려가 달라고 하자...¹⁰⁰

1997년 1월 나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 장백으로 왔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루 묵고 이튿날 떠나자고 하니 목적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집주인보고 사정했다. 우리는 중국에 살러왔는데 아무 곳이나 시집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¹⁰¹

한 북한이탈여성에 따르면 1990년대 말 이래에는 적지 않은 10대 소녀들까지 인신매매 되었는바, 자신의 친척인 16세 된 여성의 어머니가 “팔려가더라도 잘 먹고 잘 살라고” 딸을 중국으로 보냈으며, 그 여성은 북한인 중간매개자와 중국 조선족 중간매개자에 의해 한족에게 팔아넘겨졌다고 한다.¹⁰²

북한여성 인신매매는 식량난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9년의 한 조사결과에서도 중국 거주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는 ‘배가 고파 먹고 살기 위해서’(81.7%), ‘중국에서

⁹⁹ 위의 책, p. 61.

¹⁰⁰ 위의 책, p. 64.

¹⁰¹ 위의 책, pp. 66-67.

¹⁰² 허경희, 2004년 4월 16일 면담.

일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해서’(75.2%), ‘북조선에 있는 가족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50.5%), ‘같이 탈북할 사람들이 있어서’(37.1%), ‘중국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15.8%), ‘부모나 형제,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해’(8.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복수응답).¹⁰³ 그러나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는 중국내 수요와도 맞물려 급증추세를 나타내었는 바,¹⁰⁴ 부부 당 한 자녀 이상을 금지하는 중국의 인구정책으로 인해 중국 남녀인구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됨으로써 중국 내에 신부 부족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1990년대 말 결혼 적령기의 신부 부족사태를 초래하였으며 신부 부족현상은 도시보다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농촌사정은 북한의 어린 소녀들로 하여금 선택할 여지없이 중국 농부들의 결혼 ‘제의’를 절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 어린 소녀들은 노예신분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이 취급되었다.¹⁰⁵

중국으로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강제 결혼, 성폭행, 원치 않는 임신과 부인과 질병, 노동착취, 유흥가 매춘 강요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무시와 구타, 경제적 어려움, 북한거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불법체류 신고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⁶

¹⁰³ 1999년 7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 202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이다. 문숙재 외,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p. 145.

¹⁰⁴ 중국 내에서 북한여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지속적인 기근에 따른 탈북여성들의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인신매매가 성행함에 따라 최근 일부에서는 북한여성 인신매매를 성폭력의 하나로 인식하면서도 관점을 달리하여 일종의 밀매매(smuggling) 현상으로 파악하는 경향도 있다.

¹⁰⁵ 나초스 지음, 황재옥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 105.

종래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주로 입당 및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하여 발생하였다. 당 간부들이 입당을 미끼로, 또는 직장에서 편한 자리에 배치해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성폭행하며 특히 미혼 여성이 입당하는 경우에 성폭행 사례가 많은 편이었다고 한다.¹⁰⁷ 또한 군부대 내에서 남자 군관들에 의해 여자군인들이 성폭행 당하는 사례도 많으며,¹⁰⁸ 거리에서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야 했으나 돈이 없어 내지 못해 단속원의 집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하였다는 사례도 있다.¹⁰⁹ 그러나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문제시되지 않는 편이다.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성폭행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으며, 여성들을 하대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폭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직장 내에서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수모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여성 스스로가 침묵하며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떠맡게 된 이후로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입당이나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한 성폭행보다는 장사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장마당 안전원, 열차승무안전원, 군인 등이 단속을 이유로 성폭행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식량난 이후 장사를 위해 지역이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불이 꺼진 밤기차나, 자동차에서 군인들의 성폭행도

¹⁰⁶ 김태현·노치영,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참조.

¹⁰⁷ 이재근, 2004년 1월 7일 면담

¹⁰⁸ 허경희, 2004년 4월 16일 면담.

¹⁰⁹ 이○희, 2002년 11월 16일 면담.

많아졌다고도 한다. 식량난 이후 발생한 성폭행 사례들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은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갔다가 강제송환 되어 온 북한여성
에 대한 성폭행이다. 식량난 이후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강제
송환 되어 구속되면 당국으로부터 가혹행위나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돈이나 비밀편지, 비밀문건을 찾기 위한 몸수색 과
정에서 자궁검사를 하기도 하며, 심문이라는 구실 아래 여성의 옷을
다 벗기고 몸의 특정 부위에 전기 형을 가하는 등 성폭행을 가한다는
것이다.¹¹⁰

그러나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감안해야
할 것은 다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생존을 위해 여성
스스로 성을 상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
면 식량난 이전에는 주로 입당이나 직장에서의 승진, 또는 좋은 자리
배치를 위해 여성들이 당 간부에게 성을 상납했다고 한다. 그러나 식
량난 이후에는 특히 미혼의 젊은 여성들이 여행증명서 없이 식량을
구하러 다니거나, 장사를 다닐 때에 열차안전원에게 성을 상납하며,
또는 장마당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성을 상납하기도 한다. 이 외
에도 장사를 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편의
를 제공받기 위해 운전수에게 성을 상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알려
지고 있다.

돈이 적은 여자들은 몸치장을 잘하고 운전수를 사귀어 장사 물
건을 운반하는데 장사를 갔다 오는 동안 운전수의 담배, 술, 도중
식사를 대접하며 심지어는 몸까지 준다.¹¹¹

¹¹⁰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 pp. 102-105.

¹¹¹ 권혁, 『고난의 강행군』, p. 22.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와 성폭행 외에 남편의 아내 구타, 곧 가정폭력의 심각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을 문제시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성 폭력에 대해 여맹이 개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법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인민반회의 또는 여맹회의에서 한 두 차례 사건 관련 남성을 비난하고는 단순 가정사로 사건을 종결짓는다.¹¹² 따라서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남편의 아내 구타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는 식량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이탈여성들에 의하면 주부들이 장사를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오히려 남편의 음주와 구타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 가정들이 적지 않으며, 남편의 심한 구타로 인해 부인이 가출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성폭력은 그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¹¹³ 북한에서 식량난과 함께 나타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심화현상은 식량난이 초래한 북한사회의 성문화 왜곡과 보다 열악해진 여성 지위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 생계유지를 위한 성의 도구화

북한에서 식량난 이후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으로 구성되는 가격의 이중구조화로 인해 발생한 또 하나의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매춘이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큰 차이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돈의 가치를 최우선시하게 하였으며, 생계유지문제 해결이 절박한 여성들에게 있

¹¹² 김정길, 2003년 10월 20일 면담.

¹¹³ 김원홍 외, 『개정 오늘의 여성학』, p. 317.

어 가장 쉽고도 빠르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매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춘이 북한여성들에게 있어서만 생계유지를 위한 대안은 아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일부 한국여성들에게 있어서도 매춘은 생계유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인식되었으며, 1970년대 말부터는 절대적 빈곤으로 인한 ‘전통적 매춘’이 퇴조하고 쉽게 돈을 벌거나 쾌락을 얻기 위해 향락업소를 매개로 하여 성을 파는 ‘산업형 매춘’, 또는 ‘겸업 매춘’ 현상이 크게 늘어났음은 주지하는 대로이다.¹¹⁴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고용 기회가 제한적이고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극히 어려울 때 매춘은 이념이나 제도를 뛰어넘어 여성들에게 있어 유용한 대안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 사이에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이 성행하였으며, 조직적으로 사업화된 여성 매춘도 있다고 한다.¹¹⁵ 여대생의 매춘도 적지 않았는바, 특히 평양에서는 외국인, 부유층, 군인 등을 상대로 한 여대생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행위가 많았으며,¹¹⁶ 다른 지역으로 장사하러 나간 여성들의 매춘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시내에서 농촌으로 장사하러 온 여자들이나 처녀들도 가을철을 놓치지 않고 자기들의 솜씨를 발휘했다고 한다. 그 솜씨란 밤에 경비를 서는 군인들에게 몸을 주거나 또 처녀들인 경우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몸을 주고 그 대가로 식량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¹¹⁷

¹¹⁴ 김원홍 외, 『개정 오늘의 여성학』, pp. 116-117.

¹¹⁵ 40~50대 여성들이 장마당, 사람 왕래가 많은 길목, 여관 등지에서 포주 노릇을 하기도 한다. 김정훈, 2003년 10월 27일 면담; 김정길, 2003년 10월 20일 면담.

¹¹⁶ 김명순, 2004년 4월 29일 면담.

심지어는 부모가 딸에게, 또는 남편이 부인에게 매춘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성년 여자아이들의 매춘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⁸

식량난이 심화되고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북한여성들 사이에서도 생계유지형 매춘과 함께 부의 축적과 일신의 안락을 위해 성을 상품화하는 여성들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장마당에는 돈 있는 장사꾼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춘을 전업으로 하는 여성들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매춘은 대개 역전의 대기숙박소¹¹⁹ 등의 시설을 이용하며 2030대 과부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술과 음식을 팔며 여행자나 출장원, 군인 등을 대기숙박시키면서 매춘을 하기도 한다.

매춘을 전업으로 하는 여성들 가운데는 매춘상대의 돈과 물건을 훔치거나 약탈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리원의 매음하는 여성들은 강도질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하다. 그들은 남자들하고 짜고 출장원이나 돈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집으로 데리고 간다. 그러면 ...남자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두들기고 돈과 짐을 빼앗는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남자들과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고는 남자가 깊이 잠든 사이에 옷을 뒤져 돈과 귀중품, 짐을 도적질해 가지고 도망친다.¹²⁰

¹¹⁷ 권혁, 『고난의 강행군』, p. 136.

¹¹⁸ 위의 책 참조.

¹¹⁹ 대기숙박소는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집에서 돈을 받고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다.

¹²⁰ 위의 책, p. 88.

한 북한이탈여성은 1998년까지만 해도 매춘행위가 발각되면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고 하나,¹²¹ 대체적으로는 매춘여성이 단속에 걸리면 노동단련대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수용되었다가 풀려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히 생계유지를 위한 주부의 매춘행위일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면제해 주거나 수용기간을 보다 단축시키며, 미혼 여성일 경우에도 신분이 확실하면 수용기간이 단축된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을 버리고 매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장기간 수용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¹²²

¹²¹ 유순음, 2004년 4월 29일 면담.

¹²² 정주화·노춘화, 2004년 4월 14일 면담.

3. 건강 악화

1990년대 중반 이래 수년간에 걸친 북한의 기근은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1백만 이상의 북한주민들을 영양실조와 이로 인한 질병, 또는 비위생적 식수와 물 부족 등의 불결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전염병 등으로 희생시켰으며, 그 대상은 주로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여성¹²³들이었다. 다른 북한주민 모두에게 일반적이듯 기근으로 인한 북한여성들의 희생 역시 영양실조에서 비롯되었다.¹²⁴ 그러나 굳이 차별화한다면 북한여성, 특히 어머니들은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먹지 않거나,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영양실조로 인한 건강악화가 보다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먼저 먹고 음식이 남으면 겨우 한 끼니를 때우는 정도였으며 4~5일씩 굶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영양실조로 인해 발병하는 펠라그라, 결핵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할머니들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한다.¹²⁵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어머니들이 “한공기의 죽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양보”¹²⁶하는 이와 같은 실태가 근본적으로

¹²³ 1997년 미국의 북한 식량난 관련 공식 평가에 따르면 “동북지역과 서북의 일부 지역에서 5%와 10%에 이르는 기아와 관련된 사망률이 나타나고 있다. 하루에 지급되는 150그램의 식량은 최근에는 중노동을 하는 남자에게만 한정해서 배급하고 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여성들은 전혀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 나초스 지음, 황재욱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 207.

¹²⁴ 2002년 10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당국과 함께 전국적으로 실시한 어린이와 어머니의 영양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어머니의 약 1/3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어머니들의 영양실조가 어린이 영양실조의 주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UNICEF, *Nutrition Assessment 2002 D.P.R. Korea* 참조.

¹²⁵ 정주화 · 노춘화, 2004년 4월 14일 면담; 김명순, 2004년 4월 29일 면담.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가정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한결같이 전하고 있다. 이를 테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들은 세대주,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먼저 챙겼으며, 또한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어머니 자신은 소량의 옥수수가루, 또는 밀가루를 물에 풀어 들푼을 넣고 끓인 풀죽으로 하루 한 끼를 때우거나 아예 굶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식량난중에 북한에서 가장 형편이 나았다고 하는 평양에 거주했던 한 탈북난민도 “남성들은 군에 가면 배고픈 고생은 없었지만 휴가 때 집에 가보면 밥상에서 늘 눈치를 보았다. 남편, 아들이 우선이다 보니 녀동생들과 어머니는 늘 제대로 잡숫지 못했을 것이다.”¹²⁷라고 말한다. 한 탈북난민 여성이 말하는 다음의 내용에서도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가정문화가 식생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잘 엿볼 수 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입쌀은 세대주 것이고 강냉이밥은 여자랑 아이들끼지요. 옛날에 배급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입쌀이 내려오면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쌀 내려온다’ 그러고, 강냉이 내려오면 ‘엄마 쌀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 응당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¹²⁸

기근으로 인한 북한여성들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건강악화이다. 여성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¹²⁹ 영양부족 상태에서 수태함으로써 유산 내지 사산, 또는 미숙아 내지 저 체중아 출

¹²⁶ “당의 참된 딸로 사는 행복,” 『로동신문』, 2000년 3월 8일.

¹²⁷ 최명숙, “90년대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p. 2.

¹²⁸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 235에서 재인용.

¹²⁹ 북한이탈여성들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 사이에 생리불순이거나 아예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산 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신부의 건강을 해치게 된 것이다.

영양결핍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불임으로 출생률이 크게 낮아졌음은 한 조사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기아가 발생하기 전 1990년 초에는 1,000명당 21.8명의 출생률을 보였는데 1997년에는 1,000명당 11명으로 감소함으로써 출생률이 50%나 낮아졌다.¹³⁰ 기아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 여성의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이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보급체계도 붕괴됨으로써 안전한 피임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들이 잘못된 낙태를 시도하여 아이와 산모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결혼 후 저는 임신하게 되었는데 너무 힘들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정동편(아스피린)으로 류산하려고 몇 번을 먹었습니다. 서시(두부에 간하는 간수)도 몇 차례 먹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열 달이 되자 해산했는데 아이는 다섯 달이 지나도 골(머리)을 들지 못하며 온 몸이 무골(뼈가 약한 상태)이었습니다. 태반이 튼튼하여 비록 류산이 안 되었지만 약물 과민으로 무골이 된 것이었습니다.¹³¹

북한에서 피임은 주로 여성들이 거주지 병원에서 무료로 배급하는 ‘고리’(루프: loop)를 사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재질도 문제이지만 34년마다 바꾸어 사용해야 하는 것을 10년 이상 사용함으로써 부인과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¹³⁰ 나초스 지음, 황재옥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 101.

¹³¹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 p. 76.

고리는 아이를 못 배게 하는 기구이다. …쇠라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 …대체로 보면 아이를 돌까지 놓고 안 놓기 때문에 고리를 넣으면 그 뒤에 빠지 않는다.¹³²

식량난이 심화된 1990년대 중반 이래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피임용 고리 보급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성들은 중국에서 오는 보따리 장사로부터 피임기구들을 몰래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많다고 한다.

북한에서 혼전·혼외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래 외국문화의 유입에 따른 성의식의 변화와 함께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혼전·혼외 성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혼전·혼외 성행위에 의한 임신부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 낙태수술을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률이 급증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1998년 제2차 어머니대회를 통해 다산이 장려되고 특히 김정일의 ‘아이를 낳을 데 대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낙태나 피임 시술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역시 불법 낙태수술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뇌물을 주고 의사를 집으로 불러 비밀리에 중절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마취도 거의 하지 않는 시술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하여 여성건강을 크게 해치며 이로 인해 불임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한 예로 집에서 불에 달군 쇠 젓가락만을 사용하여 중절수술을 했던 한 북한여성은 수술 후 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결국은 불임 여성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¹³³

¹³² 좋은벗들 엮음,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p. 48.

¹³³ 허경희, 2004년 4월 16일 면담.

수년간 지속된 기근에 따른 북한여성의 건강문제는 위에서와 같은 영양실조와 이로 인한 임신·출산·육아의 어려움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의 대부분이 장사를 수단으로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나 열악한 장사 환경 내지는 조건(소매치기, 강도, 인신매매, 성폭행, 열차·장마당 안전원 및 군인의 횡포 등 타인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대한 불안감과 장거리 도보, 배고픔 등)으로 인해 심신의 건강이 심각한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가족부양의 책임 증가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고통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여성들 사이에 결핵을 비롯해 자궁암, 유방암, 당뇨병 등을 앓는 환자가 많아졌으며, 특히 매춘으로 인해 성병을 앓는 여성들이 적지 않으나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마당에서 구입한 중국약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형편이라고 한다.¹³⁴

1989년 평양축전 이후 북한정부의 재정사정 악화로 인해 군·도 위생방역소 및 각급 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병원 설비 및 의료환경이 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한다.¹³⁵ 이를 테면 특수병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병원에서 약품이 부족하여 환자가 약을 사서 써야 하며, 병원에 대한 전기·난방 공급이 부실해져 입원 환자가 난방은 물론 자신의 식사까지도 마련해야 하고, 방역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990년대 중반 이후 파라티프스, 콜레라, 장티프스, 결핵,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이 수시로 창궐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과 관련해서는 부인과 질환을 전

¹³⁴ 허경희·최현실, 2004년 4월 16일 면담.

¹³⁵ 채규익(전 ‘남포 고려병원’의사)의 증언, 통일부 자료.

문으로 다루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고 종합병원 내에 부인과가 설치되어 있는 정도이며, 위생대(생리대)가 거의 없어 생리 처리가 매우 비위생적이라고 한다. 경제난 악화 이후 의류 공급도 중단됨에 따라 여성들의 속옷 부족 및 불량으로 인해 부인과 질환이 확산되고 있다는 실태조사 보고도 있다.¹³⁶

식량난이 초래한 북한여성의 건강악화는 북한여성들의 건강 의식 내지 인식에서도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한 마디로 북한여성들은 자신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 내지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자의 북한이탈여성 면담결과와 중국 거주 탈북난민 여성들의 관련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여성들은 부인과 질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며 부인과 질환에 대한 인식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여성 면담결과를 통해 보면 이들은 부인과 질환의 병명이나 발병 원인 및 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자궁암이나 유방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북한여성들이 부인과 질병에 대한 조기·정기진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인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여성 건강과 관련한 교육·홍보가 미흡한 편이라는 데에서도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한 예로 북한의 유일한 여성잡지인 ‘조선민주녀성동맹’ 기관지 『조선여성』에서는 여성 관련 의학 및 건강에 관한 상식을 다루고 있으나 그 내용은, “부인병과 그 치료”, “임신부들이 알아야 할 몇가지”, “습관성류산을 막는 음식료법”, “산모에게 좋은 좁쌀”, “산후 젖없이

¹³⁶ 최명숙, “90년대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p. 7.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갱년기장애와 그 증상에 대하여” 등 여성 관련 질병 및 예방법, 임신·출산 등에 대해 상식 수준의 해설을 하고 있으며 지면할애도 아주 적은 편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교육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달거리를 할 때 엄마한테 교육받는 것은 없고 중학교 실습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르쳐 준다. 달거리가 시작되면 이제 여자로서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위생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만 알려 준다. 이 달거리가 다른 한 인간을 잉태하기 위한 시점이라는 건 안 알려 준다. 그건 말하기가 무엇 해 한다. 선생님들도 뻔히 아니까 학생들 앞에서, ‘자 동무들이 달거리하기 때문에 남자들과 주의하시오’라고는 하는데 왜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까놓고 말하지는 않는다. 열 여섯, 그때 쯤에 달거리에 대한 것이 책에 나온다. 아기가 잘 서는 기간, 잘 안 서는 기간, 임신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책을 더 읽어 보시오’라고만 한다. 우리는 그걸 다 읽어 보고 자체로 안다.¹³⁷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여성들이 자신의 건강문제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태도는 여성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남존여비 관념의 자기비하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약이라는 건 별로 써 못봤어요. …천하게 살아나구 또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췌게 아파해두 생각뿐이지. …우리 어머니랑 정말 그렇게 아프면서두 참드라구요.¹³⁸

¹³⁷ 좋은벗들 엮음,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pp. 50-51.

¹³⁸ 김태현·노치영,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p. 70.

4.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 강화

식량난으로 인해 가족단위로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종래 북한의 가부장적 가정생활에서 일단의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난이 심화되고 공장, 기업소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남편들도 부인을 따라 장사에 나서는가 하면,¹³⁹ 여성들이 밖에 나가 장사를 하는 동안 밥짓기, 청소, 아이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남편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밥도 짓고 가정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자들이 나가서 자기네 역할을 못하니까, 본인들 잘못은 아니고 국가적 사정 때문이지만, 여자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든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 오든 이젠 여자가 세대주 역할을 하니까, 남자가 밥도 해주게 되고 청소도 해주게 되고 하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남자가 그런 일을 하면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크게 부끄럽지 않은 일로,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더라구요.¹⁴⁰

또한 식량난 이후 여성들에 의해 생계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가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언들도 적지 않다.

그래도 남편들이 뒷받침을 해주는 거니까, 밥을 해주거나 아이들 봐주거나 그러니까 여자가 벌어도 같이 협력해서 한거지 여자 혼자 한 것은 아니지. ...지금은 좀 여자 목소리가 나오기

¹³⁹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직장생활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진 이후로는 남자들도 단독, 또는 부인과 함께 장사 등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에 적극 나섰다 한다.

¹⁴⁰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p. 245-246에서 재인용.

는 했어도 그래도 완전히 변화하지 않고 남편에 대한 그런 것은 있지.¹⁴¹

그러나 식량난 이후 북한의 가정에서 장사와 같은 부부간 협업 내지 남성의 가사 돕기 현상이 증가하고 여성의 발언권이 보다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북한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생활의식이 달라진 것은 아니며 성별 역할분담의식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여성이 식량과 생활비를 조달하는 등 가정 경제를 주도하고 남성(남편)이 가사와 양육의 일부를 담당, 또는 보조함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구조에 가시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해 기존의 가부장적 생활의식과 성역할분담의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조사결과에서도 경제난 이후 북한의 가정생활에서 엄격한 성별분업현상은 깨어졌지만 가부장제 질서의 와해를 의미할 정도는 아니며 여성의 의식변화도 가부장제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북한여성들은 이전처럼 성별 역할분담 자체에 대한 고정관념은 버렸지만 가정의 일은 여전히 여성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과 함께 남편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섬김과 복종의 대상으로는 아니지만 그의 가부장으로서의 존재와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¹⁴² 이는 위에서의 인용문들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북한여성들은 가장인 남편이 이전과 같이 생계유지 전담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는데 대해 “본인들 잘못은 아니고 국가적 사정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또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사분담 차원에서 수용하기보다는 남편이 자신을 대신해 식량문제를

¹⁴¹ 위의 글, p. 241에서 재인용.

¹⁴² 구수미·이미경, “1990년대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 p. 95.

해결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행하는 ‘고마운 조력자’의 도움이라고 인식한다. 이와 같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정생활문화는 관련 조사결과들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성역할고정성에 대한 수준이 매우 높은 바, 가족의 주인은 가장이며, 남편에게 순종해야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는 등의 의식에 대해 80%~94%의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¹⁴³ 또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북한 가정에서 자녀 수 결정 문제, 자녀교육방법, 휴일이나 휴가일정 결정 문제, 집안 세간 구입 문제, 여가생활문제 등과 관련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남편 의견이 절대적이거나 큰 편¹⁴⁴이며, 저축이나 보험을 드는 문제와 생활비 관리 문제에 한해서만 부인 의견이 절대적이거나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⁴⁵ 중국거주 탈북여성의 약 61%가 보수적·가부장적 성 의식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도 있다.¹⁴⁶ 그런가 하면 한 조사결과에서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이상적인 여성상은 어른이나 집안에서 인정받는 며느리, 남편에 대한 내조를 잘하는 아내인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전통적 성역할 논리에 따른 여성이미지가 강하게 고착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⁴⁶ 이와 같은 조사결과들은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감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가장권의 약화와 함께 여성의 권한 및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종래의 가부장적 의식을 바탕으로 성역할 분담성

¹⁴³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 84.

¹⁴⁴ 박미석·장진경, “남북한 가정 경영 비교를 통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 2000), pp. 201-202.

¹⁴⁵ 김영란·김혜영, “남북한 여성의 사회의식에 관한 비교연구 및 수렴방안,” 『아세아여성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 2000) 참조.

¹⁴⁶ 위의 글, pp. 236-238.

및 고정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다음의 인용문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자들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가정일도 많이 하고, 나가서 일을 해도 자기를 내세워서 하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이걸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순종하고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남편한테 재세(연구자 주: 유세)하거나 싸우다가도 대들거나 하는 것 없어요.¹⁴⁷

본 연구자가 면담한 북한이탈여성들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이 장사를 통해 경제력이 강해지면서 가정에서의 발언권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나, 여성들은 세대주를 집안의 가장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가부장 중심의 가정생활에 저항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생계유지 등 가정생활 관련 문제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도 여성들은 부정 내지 저항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순응하는 편이라고 한다.

식량난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와 관련해 가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이 강화되고 있음은 북한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존여비사상에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남존여비사상을 “착취사회의 반동적 룰리도덕관”이며 “근절되어야 할 봉건유교사상의 잔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입장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남존여비관은 강한 편이며, 이와 같은 관념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함께 북한여성의 삶을 제약

¹⁴⁷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p. 240-241에서 재인용.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량난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여성에 대해 중국 연변대학의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조선의 일상생활에서도 가부장적인 남녀불평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전부를 가정살림과 식구들의 치닥거리에 바치는 바로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시어머니’, ‘일터에서는 훌륭한 여성, 가정에서는 현모량처인 아내’ 등 여성의 참모습을 보여주며 남편들은 무조건 여성들이 자기를 따를 것만 강조하고 여자니깐 참아야만하고 불평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모 부양에서도 아들의 강력한 의무가 유지되어 있기에 여성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가정의 화목은 며느리에게 달렸다’고 하면서 가정불안의 원인은 모두 여성에게만 돌린다. 남성들은 으레 가사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현재도 여성이 밖에 나가 식량을 구입하여 밥상을 차릴 때까지 남성들은 팔짱만 끼고 있다고 한다.¹⁴⁸

그러나 북한이탈여성들과의 면담결과에 따르면 북한 여성의 대부분은 사회 전반에 남존여비사상이 만연해 있음을 알고는 있으나 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며, 남존여비사상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남녀평등은 노동생활에서만 구현되고 있으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의 삶은 남녀불평등하고 남성에 대해 종속적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굳이 저항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여성들은 결혼생활에서 “남자는 하늘”, “세대주는 그저 섬겨야 되는 존재”로서 공대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이와 같이 세대주의 권위를 높여주고 공대함으로써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믿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북한이탈

¹⁴⁸ 최명숙, “90년대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p. 11.

여성은 “세대주가 바로 서야 가정이 평화롭고, 그래야만 나라가 평안하고 시대가 건전해지는 것이니, 따라서 세대주의 권위를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사회도덕생활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일 뿐만 아니라 당의 방침이기도 하다.”¹⁴⁹라고 말한다.

¹⁴⁹ 유순음, 2004년 4월 29일 면담.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의 역할 및 의식 변화

1. 역할 변화

가. 가족부양 책임 증대

수많은 아사자를 발생시킨 식량난을 겪으면서 북한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이전의 보조적 역할이 아닌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가족부양의 책임도 크게 증대되었다.

조선 전체는 녀성이 애써 벌어서 산다. 생계유지를 하는 것도 녀성이 주력군이다. …녀성이 없으면 남성은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 엄마 있는 아이는 아빠가 없어도 꽃제비가 되지 않지만 엄마가 죽고 아빠만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꽃제비가 된다.¹⁵⁰

식량난으로 인해 여성들의 가족부양 책임이 커진데 대해서는 북한당국도 인정하고 있는바, 1990년대 말 이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생계를 떠맡은 여성들을 격려하는 글들이 여러 편 게재되기도 하였다.

¹⁵⁰ (사)좋은벗들 엮음, 『사람답게 살고싶소: 북한난민 1,855명 증언』, p. 56.

뜻밖에 들이닥친 식량, 전기, 쌀감 등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 여성들에게 먼저 미쳐 왔다.¹⁵¹

돌이켜 보면 몇 년째 이 땅을 뒤덮었던 고난과 시련의 검은 구름은 이 나라 여성들의 가슴속에 먼저 그늘을 드리웠었다.¹⁵²

북한이탈여성들은 남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여성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능동적·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여성들은 가족부양을 위해 억척스럽게 일하며, 이러한 처지를 빗대어 여성들 사이에서는 ‘녀성은 꽃이라네’라는 노래가 ‘녀성은 황소라네’라는 가사로 바뀌어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¹⁵³

식량난 이후 가족부양의 책임이 북한여성들에게 떠맡겨진 데에는 기본적으로 생계유지와 같은 가정생활 관련 문제는 여성이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북한여성 스스로도 여자는 시집가서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돌보는 게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여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감에서 장사 등의 경제활동에 나선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장사는 거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대부분이 장사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으므로 그만큼 여성들의 가족부양 부담이 컸다고 한다.

¹⁵¹ “당의 참된 딸로 사는 행복,” 『로동신문』, 2000년 3월 8일.

¹⁵² “조선녀성의 힘은 강하다,” 『로동신문』, 2000년 7월 30일.

¹⁵³ 정주화·노춘화, 2004년 4월 14일 면담.

뭘 팔던지 여자들이 팔지 남자들은 못판다. 북한에서 남자들이 장사하는 것을 제일 수치로 여긴다. 남자들은 장마당가서 장사하는 것을 다 질색한다.¹⁵⁴

그러나 여성들의 생계유지 부담이 가중된 보다 현실적인 요인은 경제난의 악화로 인한 기업소, 공장 등의 가동 중단이라 하겠다. 기업소와 공장에서의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직장에서 일거리가 없어지고 노임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엄격한 노동법규정¹⁵⁵에 따라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야 했으며, 따라서 여성들이 가장을 대신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본래부터 북한여성이 지니고 있는 가족에 대한 희생정신과 생계유지에 대한 의무감으로 인해 북한여성의 가족부양 부담이 더 커졌다고도 말한다.

북한여성들은 가정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산다. …북한여성의 경우 가정을 유지시키려는 책임감은 남성에 비해 훨씬 강하다. 의무감과 희생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수록 더 많은 짐을 지게 되었다.¹⁵⁶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가족부양을 위해 북한여성들이 한 일은 다양하나 가장 보편화된 경제활동은 장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3년 이전에 탈북한 응답자들의 44.8%가 식량구입을 위해 장사를 했다고 답하였으나, 1994년 이후에 탈북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81.3%가 장사를 했다고 답하고 있다.¹⁵⁷ 또 다른 연구보고

¹⁵⁴ 구수미·이미경, “1990년대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 p. 93에서 재인용.

¹⁵⁵ 북한 사회주의노동법 제18조는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¹⁵⁶ “탈북인사대담: 북한 여성 농장원의 생활,” 『통일한국』 (2000.2), pp. 40-41.

서에서도 소수의 전문직 여성들(의사, 교원, 국가기관 임원 등)과 환자를 제외한 거의 70%의 여성들이 장사를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⁸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가족부양을 위해 북한여성들은 텃밭 경작물이나 간단한 먹을거리를 장마당에 내다 팔거나, 접경지역에서 중국동포 보따리 장사로부터 물건을 사들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되거리 장사¹⁵⁹를 하거나, 아니면 생필품 등을 싸들고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며 보따리 장사를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은 가재도구를 내다 팔거나 이웃, 또는 친척에게서 돈을 빌려 ‘자본’을 마련하기도 하고, 장마당·열차단속원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바치는 등 나름대로의 수완을 동원하였다.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위해 장사 다음으로 힘쓴 경제활동은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업 활동, 가정에서 집짐승 기르기, 텃밭·패기밭 경작 등의 부업이다.

북한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가내작업반¹⁶⁰은 부양가족들이 공장에서 예비로 탐구된 원료, 자재, 반제품, 폐설물들을 가져다가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조직형태이며, 특히 직장이 없는 기혼여성들로 구성되는 인민소비품생산 조직이다.

가내작업반은 도시와 로동자구 로동자, 사무원 부양가족, 주로 가정부인들로써 조직된다. 가내작업반의 로동수단은 개인들

¹⁵⁷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 148.

¹⁵⁸ 최명숙, “90년대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p. 10.

¹⁵⁹ ‘되거리’란 “어떤 상품을 사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비싸게 팔아넘기는 일”을 뜻한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902.

¹⁶⁰ ‘가내작업반’의 실태와 특성에 대해서는 고미라 외, “가내작업반을 통해서 본 북한여성의 이중노동,” 『연구논집』, 제24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참조.

이 가지고 있는 간단한 도구들이 기본으로 되고있으나 공장에서 대역하여다 쓰는 경우도 있다. 가내작업반원들은 일정한 공동작업장을 정하여 놓고 일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일하기도 한다. …가내작업반을 많이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도시와 노동자구의 가정부인을 비롯한 유희노력을 생산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노력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 기여한다.¹⁶¹

가내작업반은 1984년 ‘8·3인민소비품 생산확대운동’의 일환으로 주로 기혼여성들의 유희노동을 흡수하여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를 도모한 생산조직이다.¹⁶² 공장이나 인민반에서는 근로자들이 부업으로 가내작업반에 참여하기도 하나 구역별로 직장이 없는 70~80%의 기혼여성들과 노인들을 대거 흡수하여 전적으로 생산에 종사케 한다. 가내작업반에서는 지방특산물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탄광 같은 곳에서는 갱내 안전모, 채반 등을 생산하고 농촌지역에서는 밭을 개간하거나 닭, 돼지, 염소 등을 사육하여 콩나물, 도라지, 두부, 염소젖, 고기가공품 등과 같은 부식을 공급하기도 한다. 도시의 백화점이나 종합상점 내의 가내작업반에서는 거의 모든 생필품을 생산하며, 협동조합이나 공장 내의 가내작업반에서는 그 공장의 폐설물과 부산물 또는 유희자재 등을 이용하여 옷가지, 편물, 일용잡화, 단추, 신발 등을 생산한다.

가내작업반은 특히 직장을 나가지 않는 기혼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수입원으로서의 의의가 적지 않으며, 따라서 가내작업반이 활성화되면서부터는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아졌다고도 한

¹⁶¹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 61.

¹⁶² 김애실, “여성의 경제활동,” 손봉숙 외,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1991), pp. 211-215 참조.

다. 또한 동에서 운영하는 가내작업반은 사회동원을 빼는 데에도 활용되었는바, 가내작업반에 일정액의 돈을 바치면 사회동원에서 빠지고 장마당에 나가 돈을 벌수도 있다는 것이다.¹⁶³

가내편의봉사사업은 “가정부인들과 년로자들, 사회보장자들이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면서 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조직운영하는 개인부업경리의 한 형태”¹⁶⁴를 말하며, “폐기폐설물, 유휴자재, 농토산물로 세소일용품과 부식물들을 만들어 공급하는 가공편의업, 일용필수품을 수리해 주는 수리수선편의사업, 미용, 빨래를 해주는 것과 같은 위생편의업”등으로 구분되며 사진촬영도 가내편의봉사사업에 해당한다.

위에서와 같이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은 가내작업반 활동과 미용, 옷수선, 사진촬영 등의 가내편의봉사사업을 통해 가족의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이 외에도 하루 샅일이나 품팔이 임노동, 또는 산나물 채취나 술 등 음식물 제조 판매, 일용수제품 판매 등의 개인 상업행위를 통해서도 가족부양에 힘쓰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상업행위를 통해 돈을 모았다는 한 북한여성의 사례이다.

직장 다니면서 중국실을 갖다 떼어요. 그게 아주 장사가 잘 되더라구요. 직장 다니는 날은 수건을 하루에 2개씩 뜨고 노는 날은 4개씩 떼어요. …대여섯달 동안 떼는데 한 6, 7천원을 벌었어요. 월급하고 상대도 안되죠.¹⁶⁵

북한여성들은 가족부양을 위해 가정에서 염소, 토끼, 닭, 개 등의 짐짐승을 기르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으며 텃밭·패기밭에 감자, 강냉

¹⁶³ 구수미·이미경, “1990년대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 pp. 98-99.

¹⁶⁴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1』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p. 62.

¹⁶⁵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저,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 p. 254.

이, 채소 등을 경작하여 가족의 식량으로 조달하거나 농민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월급에서 부족한 나머지는 부업한 것으로 채웠어요. 부업은 우리가 아파트 집이 아니고 독집이었으니까 개도 기르고 토끼도 기르고, 그것은 일 다니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부업을 많이 해요. 집에서 가축 부업을 했는데 거기는 그것이 수입이 높아요. 나가서 일하는 것 못지않게 수입이 좋아요. …식량난이 어려워서 부업을 한 거지요.¹⁶⁶

식량은 우리가 조금 터전 밭이 있어서 40·50평 정도의 밭이 있었는데 봄철에는 감자, 강냉이 또 가을에는 채소 삼모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두 달 넘는 식량이 나와요.¹⁶⁷

외화벌이도 생계유지를 위한 여성들의 부업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 여성들은 단체에 소속된 외화벌이 기구에 참여하거나 개인적으로 직접 중국 상인과 접촉하여 거래하기도 한다. 특히 지리적 특성상 신의주는 중국과의 무역이 용이하여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외화벌이를 위한 해산물 채취작업에 많은 부양여성이 동원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제난 이후 다른 지역에 비해 외화벌이가 신의주 여성들의 생계유지 방식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¹⁶⁸

가족부양을 위해 북한여성이 선택한 또 다른 방법은 매춘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북한에서 여성의 매춘은 1989년 제13차 평양청년학생축전 때에 생겨났다고 한다.

¹⁶⁶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 153에서 재인용.

¹⁶⁷ 위의 글, p. 167에서 재인용.

¹⁶⁸ 구수미·이미경, “1990년대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 p. 96.

몸과는 여자들은 1989년 제13차 청년학생축전 때 생겨났다.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많았다. 청년학생축전 때 온 외국인들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동방의 여제들과 자보겠다고 했다. 그때 여자들이 하룻밤 자고 달러를 몇 푼 받은 것 같은데 …안내원들이라든가 외국인과 가까이 한 여자들이 순간, 달러에 매혹되어서였다. 그때부터 여자들이 몸을 팔기 시작했고 살기 힘든 여자들은 몸이라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¹⁶⁹

이와 같이 1990년대를 통해 여성들의 생계유지형 매춘이 성행하게 된 데에는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가족부양을 위한 여성들의 매춘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진 것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식량난을 겪으면서 북한여성들 사이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절도행위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였다. 여성들의 절도행위는 주로 밤에 기차가 들어오면 꽃제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해가며 쌀이나 석탄을 훔치는 정도이나, 여성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조직한 ‘깡단’에 들어가 보다 규모가 큰 절도나 강도행위에 가담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앞에서 밝혔듯이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남자들과 함께 매춘상대를 대상으로 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비록 시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공장이 다 문을 닫고 로임도 없고 배급도 주지 않다 보니 하는 일이라는 것이 역전 부근에 언니와 내가 가서 기차 빵통의 쌀이나 석탄을 훔쳐서는 개인 집에서 두부 하는 집에도 팔아서 옥수가루, 옥수국수 같은 것을 장마당에 가서 사서는 먹고사는 것이었습니다.¹⁷⁰

¹⁶⁹ (사)좋은벗들 엮음,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p. 46.

¹⁷⁰ (사)좋은벗들,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p. 94.

북한에는 현재 많은 갱단조직이 있다. …갱단에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¹⁷¹

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

대체적으로 북한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는 편이라고 한다. 이는 직장에서 기혼여성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원하고, 특히 여성 자신이 원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은 좋은 직장보다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가정에 안주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결혼하면 더 다닐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직장이 맘에 없으니까요. 혹시 이득이 있는 직장이라면 결혼을 해도 미련이 있어서 다니기도 해요. 이득이 있는 직장이란 대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직장이죠. 예를 들면 생활에 필요한 비누, 소래(플라스틱 바구니나 그릇) 등 일용품 같은 것을 생산하는 직장이죠. 그런 직장에서는 명절 때에 그런 일용품이 상품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자기가 쓸 수도 있고 남한테 팔 수도 있으니까 생활에 보탬이 되죠.¹⁷²

중국 연변대학의 한 연구자 역시 여성의 취직률이 높았던 1980년대 중반에도 북한의 미혼여성들은 대부분이 취직을 하였으나 기혼여성들의 취직률은 30~40% 정도였으며,¹⁷³ 전문기술직과 체력노동업

¹⁷¹ 나초스 지음, 황재욱 옮김, 『북한의 가야: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 293.

¹⁷² 홍옥화, “재중 탈북여성·고아의 삶과 인권,” 『북한여성의 삶·꿈·恨』 (서울: 민주평통 북한연구회·(사)좋은벗들, 2003), p. 47에서 재인용.

¹⁷³ 미혼여성일 경우 직업이 없으면 양식배급관계가 곧 취소되나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아이를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도 양식관계를 남편의 직장에도 옮길 수 있다(출근은 하루 700g, 이직은 하루 300g) 림금숙, “90년대이후 조선녀성들의 사회경제활동참여의 변화,” pp. 20-21.

종을 제외한 상업, 복무업 및 일반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결혼하고 해산하는 것이 곧 실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자는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은 결혼하면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천직’이라는 고정관념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식량난이 악화되고 국가적 생산·공급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여성들이 생계유지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가족부양을 위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장사, 가내작업반 부업과 수선, 세탁, 이·미용 등의 편의봉사업, 가축사육, 텃밭·패기밭 경작 등의 비공식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장사를 주 업종으로 하면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높아져갔다. 식량난 악화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작한 장사가 부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등 점차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인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장사를 통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제고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이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장사 수완 내지 요령을 터득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사 수완 내지 요령이란 장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기위한 사회 공적·사적연결망 활용, 자금조달, 이윤배가, 수지타산에 따른 상품선택 등과 관련된 것이다.

장사를 하면 조직에서 찾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고여야 해요. 나를 찾는 사람들, 즉 청년사령총위원장이라던가, 보위부라던가 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물건이나 돈을 주고 나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도 수완이 좋아 군인들과 짜고 장사하

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무엇을 하면 수지가 맞겠는가를 재
각 간파해서 그때그때 바꾸는 거예요. 양젓물, 쌀, 콩기름장사 중
에서 기름장사할 때 제일 돈을 잘 벌었어요. 북한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먹는 장사가 제일 낫겠다고 생각했던 거죠.¹⁷⁴

저희는 부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나하면 물건이 쌀 때 사놓
았다가 물건 값이 올라갈 때 팔아서 그런 것을 했지요. 시장 장
사는 안하고 저희는 돈이 있어서. …얕은 장소에서 이윤은 배로
남아요.¹⁷⁵

둘째,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란 장사 품목의 다양화와 질
적 향상을 통해 보다 높은 수입을 도모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술도 해서 팔아보고 중국 물건도 사서 넘겨도 보고 달러도 팔아
보고 해삼 장사도 해보고 하여튼 장사라고 하는 것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중국 장사꾼들이 물건을 가지고 넘어오면 물건을 사서 넘
기지요. 품목은 생활필수품이지요. 일용잡화, 식품, 옷, 화장품, 잡
화, 라이터니 전등알 같은 거요.¹⁷⁶

셋째, 장사를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여성들이 국경지역을 포함한 북한 전역을 다니며 북한인, 중국인 모
두를 상대로 장사를 함으로써 대담성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
동과 외국인 상대로 인해 북한내·외의 사정에 밝아졌다는 것을 의
미한다.

우리는 국경지대에 살았는데 중국 동포들이 보따리 장사를 많

¹⁷⁴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저,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 pp. 48-51 참조.

¹⁷⁵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 152에서 재인용.

¹⁷⁶ 위의 글, p. 151에서 재인용.

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해서 팔면 돈이 떨어지고
그러니깐 재미도 있고 돈도 벌고 그러니깐 직장을 관두고 장사했
어요. …나중에는 중국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니깐 물건 먼저 대
주고 나중에 팔아 와서 값아라 하는 식으로 해서 중국도 왔다고
그랬어요. 중국사람들하고 많이 오고가다 보니깐 바깥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¹⁷⁷

한 북한이탈주민도 장마당에서 잡화, 재생품, 기계류, 자전거 부속
등을 파는 것은 남자이고 외지로 차를 타고 장사하러 나가는 사람
은 여자가 많았다고 하며, 혜산의 여성들 가운데는 강독에서 밤에 중
국사람들과 몰래 동 같은 것을 거래하거나 역전 외화상점 앞에서 돈
장사(달리장사)를 하는 여자들도 많았다고 한다.¹⁷⁸

가족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북한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는 장사 외에도 가내작업반 부업활동과 편의봉사업, 가
축사육, 텃밭·폐기밭 경작 등 비공식부문에서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식량난이 장기화됨
에 따라 북한여성들 사이에 성행한 매춘 역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높인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식량난이 장기화되고 매춘
이 성행함에 따라 여성들에게 있어 매춘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서만이 아니라 부의 축적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된 데 따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와 관련한
평가에 있어서는 몇 가지 감안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장사를 비
롯한 여성들의 경제활동량이 증대한 것만을 가지고 경제적 자립능

¹⁷⁷ 위의 글, p. 151에서 재인용.

¹⁷⁸ 구수미·이미경, “1990년대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 p. 100.

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활동량도 중요하나 활동의 내용을 주목해야 하는바, 특히 매춘행위와 같은 경제활동은 오히려 북한여성들로 하여금 왜곡된 직업의식을 형성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장사과정에서의 부당한 거래나 이윤 추구 역시 식량난 이전에 여성들이 지녔던 직업의식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가족부양을 위한 장사는 농산물이나 단순한 물품 거래에 불과했으며, 장사 외의 부업 역시 전문지식이나 세련된 기술 내지 오랜 숙련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이 아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종래 북한여성들이 지녀 온 직업 수행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를 논하기에는 북한여성들이 가족부양을 위한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과도한 노동과 성폭력의 경험, 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너무 심각한 정도라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적으로 북한여성의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은 가족의 생계유지라는 부담을 안고 시작되었으며 여성 자신의 의지로서 중단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¹⁷⁹

¹⁷⁹ 본 연구자와 면담한 북한이탈여성들에 따르면, 북한여성들은 경제적 자립능력 자체에 대한 의식 내지 인식이 희박하며 단지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감에서 장사에 나설 뿐이라고 한다.

2. 의식 변화

가. 자아의식의 변화

북한주민 모두에게 일반적이듯 북한여성들은 인생의 주체로서의 ‘개성있는 자아’를 의식하기보다는 ‘집단속에 매몰된 획일화된 자아’를 의식해 왔으며 이는 북한당국의 집단주의를 기초로 한 의도적·획일적 사회화에 따른 결과이다. ‘집단에 속한 나’를 의식한다는 것은 곧 국가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나’를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오직 국가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개인에게는 의무와 책임만이 요구될 뿐이며 이러한 자아의식은 어떤 대의나 국가에 대한 광신과 맹목적인 헌신을 낳게 한다. 따라서 식량난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기 전까지 북한여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의무수행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으며 자신과 가족보다는 국가와 사회, 집단을 위한 삶을 지향하였다. 또한 가요 ‘녀성은 꽃이라네’에서처럼 북한에서 여성은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상징,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자신들이 대상화된 데 대하여 북한여성들은 별다른 거부감이나 저항감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 내지 임무와 관련해 북한은,

녀성은 가정의 주부이며 온 가정에 건전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차 넘치게 하는 꽃이다. 늙은 부모들이 여생을 값있게 보내도록 잘 돌봐주는것도 녀성들이며 남편이 혁명사업을 잘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받들어주는것도 안해이며 혁명동지인 녀성들이다. 아들딸들을 낳아 키우는것도 녀성들이며 그들을 혁명위업의 미더운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첫째가는 교양자도 녀성들이다.¹⁸⁰

¹⁸⁰ 박영숙, “가정혁명화와 녀성들의 책임,” 『조선녀성』 3호 (1999.3), p. 15.

라고 한다. 실제로도 북한여성들은 현모양처로서 희생적·헌신적 뒷바라지를 한 남편과 자식의 성공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며, 헌신적인 아내의 삶, 모성에 강한 어머니로서의 삶을 추구해왔음이 사실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를 통해 북한이 공식 지향한 여성상은 ‘대지의 어머니’, ‘자아희생의 화신’, ‘충효일심의 효녀’ 등으로 개념화된다.¹⁸¹ 이는 곧 북한이 여성들에 대해 대지와도 같이 모든 것을 품는 어머니로서의 존재, 자아희생적인 삶, 그리고 당과 국가에 대한 충실성을 지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한다. 1990년대라는 시기를 감안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는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요약하건대 위에서와 같이 북한이 공식 지향하는 여성의 자아의식은 집단주의적 자아, 대상화된 자아, 희생적·헌신적 삶 속의 자아 등에 대한 의식 내지 인식이다.

그러나 1990년대를 통해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의 자아의식은 크고 작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점차 인생의 주체로서 개성 있는 자아를 지향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맹목적으로 가족을 위한 희생적·헌신적 삶에 자신을 매몰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2장 제2절의 ‘주민의 의식변화’에서 논하였듯이 이와 같이 북한여성의 자아의식에 있어 변화를 초래한 근원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과 부분적 체제개방으로 인한 외부사조 및 문물의 침투이며,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한 것은 여성들에 의한

¹⁸¹ 재미화, “90년대 조선문학에 나타난 여성형상,” 한국여성연구원,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연변대학 여성문제연구중심, 1999), pp. 30-43.

가족부양이다. 식량난 속에서 여성에 의해 생계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여성들은 점차 자신의 존재 의의 및 가치, 자신을 위한 삶 등에 대해 의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 거주하는 한 탈북난민 여성은,

자기 자신을 많이 발달시켜 주는 그런 감이 들어요. 지금 힘들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자신을 많이 키워 주잖아요. …조선에 있을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려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발 붙이고 사는구나 라고 느끼죠.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때는 기쁘지요.¹⁸²

라고 말한다.

식량난 이후 가족부양의 책임 증대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북한여성의 자아의식의 변화는 가출, 이혼, 출산·육아 기피, 독신 선호 등으로 반영되고 있다. 가출은 만성적인 굶주림과 과도한 노동, 남편의 구타 등으로 인한 가출과 남편, 자녀 등의 생계유지보다는 자신만의 안락한 삶을 위해 가정을 버린 가출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자의 경우를 외적요인에 의한 수동적·비의도적 가출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내적요인에 의한 능동적·의도적 가출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가출의 유형을 구분한다면 후자의 경우만이 북한여성의 자아의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역시 여성 스스로가 ‘자아’를 의식한 가출이라고 할 때, 수동적·비의도적 가출 또한 달라진 자아의식의 일단을 내비치

¹⁸² 김태현·노치영,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p. 187.

고 있다.

북한에서는 재판에 의한 이혼만이 가능하며¹⁸³ 이혼절차가 복잡하고 특히 여성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 이를 테면 남편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이라 해도 여성을 비난하며, 사유를 불문하고 딸의 이혼 자체에 대해 친정부모가 큰 수치로 여긴다. 그러나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이혼률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고난의 행군기간에 남편의 무능한 경제력을 이유로 한 여성들의 이혼제기가 많아졌다고도 한다.

조선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노래 소리다. 원래 결혼을 해도 2~3년간은 결혼 등록 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므로 따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 지금 조선에서는 남녀간에 같이 살면서도 몇 년 간은 실험한다는 말들을 한다. 그리고 같이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쉽게 서로 갈라진다.¹⁸⁴

식량난의 과정에서 여성에 의해 제기된 이혼사유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구타,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장사를 다니는 동안에 발생한 남편의 외도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여성의 자아의식의 변화는 출산·육아 기피 경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식량난이 초래한 기근으로 인해 출산율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북한은 1998년 9월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고 국가적으로 다산을 장려하기도 했으나¹⁸⁵ 여성들은 생활고를 이유로 출산을 기

¹⁸³ 1956년 3월, ‘내각결정 제24호’에 따라 합의이혼을 폐지, 재판상의 이혼만 허용하고 있다; 북한의 가족법은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제20조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¹⁸⁴ 권혁, 『고난의 강행군』, p. 168.

¹⁸⁵ 2002년부터는 아이가 3명이면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5명이면 모성영양 칭호를 수여했다고 한다. 이금실, 2004년 4월 29일 면담.

피하였다. 또한 식량난 이후 사실혼의 관계가 많아졌는바, 여성들이 불안정한 사실혼 관계를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기도 하였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가정에서 출산 후 고의적으로 신생아를 일주일 정도 방치해 놓아 그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¹⁸⁶ 그런가 하면 가장을 대신해 가족부양의 책임을 진 여성들 가운데 부담을 견디지 못해 자녀들을 집밖으로 내보내 각자 능력껏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¹⁸⁷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 사이에 독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갔으며 이는 자녀양육과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식량난 이후 여성의 독신생활이 하나의 풍조로 되어 간 것은¹⁸⁸ “장사하여 내가 벌어 내가 살자는 사고방식”¹⁸⁹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식량난 이후 여성의 독신생활이 많아진 데에는 독신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북한사회의 통념상 독신여성은 매춘하는 여자로 간주되어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식량난이 심화되고 여성이 가족부양을 떠맡게 됨에 따라 점차 독신여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¹⁸⁶ 정주화·노춘화, 2004년 4월 14일 면담.

¹⁸⁷ 김명순, 2004년 4월 29일 면담.

¹⁸⁸ 김정훈, 2003년 10월 27일 면담.

¹⁸⁹ 허경희, 2004년 4월 16일 면담.

나. 성의식의 변화

식량난이 초래한 북한여성의 의식변화 가운데 또 하나는 성의식의 변화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북한여성들 사이에 종래의 순결의식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성을 생계유지, 또는 부의 축적과 안락한 생활을 위한 도구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 심화되어 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의식의 변화는 식량난 이후 급증한 여성의 매춘, 동거 내지 사실혼의 관계 등으로 반영되고 있다. 북한여성들은 식량난이 심화되고 가족부양의 부담을 떠맡게 됨에 따라 순결을 지키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성을 도구로 하여 생계유지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계유지 수단으로서 시작된 매춘은 점차 부의 축적과 안락한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화되었으며, 이는 북한여성들로 하여금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형성케 하였다.

음식을 먹으면서 처녀보고 결혼했는가고 물으니 그는 대뜸 요즘 같은 시기에 시집가는 여자는 머저리라고 하였다. 시집가지 않고 장사만 잘 하면 돈도 벌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말하는 장사란 몸을 파는 장사였다.¹⁹⁰

식량난 이후 급증한 북한여성의 일시적 동거 내지 사실혼 관계는 생활상 편의, 또는 성적쾌락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¹⁹¹

¹⁹⁰ 권혁, 『고난의 강행군』, p. 189.

¹⁹¹ 위의 책 참조.

다. 경제의식의 변화

식량난 이후 가족부양을 위해 장사 등 비공식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을 해나감에 따라 북한여성들의 경제의식에 있어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존을 위해 장사 등의 경제활동을 해나감에 따라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변대학의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장시간 계획경제체제속에서 상품경제는 자본주의라는 관념 하에 장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상이 나쁜 사람으로만 보던 인식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물론 지역에 따른 차이로 중국과 린접한 변강지역과 내지사람들의 관념에는 아직도 차이가 크지만 장사해야만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현재는 장사하는 사람이 머리좋은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다. 장사를 자주 하니 의력이 터서 장사비결도 늘었다고 한다. 현재 장마당에 가면 각종 식품, 음식들이 과거보다 질과 모양이 매우 제고되었다고 한다.¹⁹²

본 연구자가 면담한 북한이탈여성들에 따르면 이들은 장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자본주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자책하지 않았으며, “그저 먹고 살기위해서 장사를 했을 뿐”이라고 한다. 사실 상 이들에게 있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들은 학교와 사회교육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제국주의, 착취계급 등의 개념과 같이 적대적이고 해악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일 뿐 객관적·체계적인 이해나 평가는 없다. 북한이탈여성들에 따르면 북한이 경제운용에서 자본주의요소를 가미한

¹⁹² 위의 책, p. 25.

것으로 평가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도 종래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들은 이 조치가 자본주의적 개혁이라기보다는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당국이 어쩔 수 없이 행한 경제조치라고 이해했을 뿐이라고 한다.¹⁹³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건대, 종래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의 해악적 요소이며 장사는 자본주의적 행위로서 각인되어져 있다. 그러나 식량난에 따른 생계유지의 어려움은 가족부양의 책임을 떠맡은 여성들로 하여금 이념적 판단을 배제 내지 유보한 채 장사에 나서도록 하였으며, 북한여성들은 장사를 하는 동안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내지 거부감이 점차 희석되어져 갔다. 북한여성들은 자본주의를 이념적·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했다기보다는 장사를 통해 체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용했다는 것이다.

북한여성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의식 변화는 시장 기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시장을 열지 않으면 단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식량은 시장에 가서 구입했는데 시장에 가면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나오기 전에는 없는 것이 없어서 홍콩시장 같다고 했어요. 자본주의나 똑같아서 명칭만 사회주의고 운영되는 방식은 자본주의와 똑같이 되고 있어요.¹⁹⁴

라고 한다.

¹⁹³ 김순실, 2004년 7월 29일 면담.

¹⁹⁴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p. 166에서 재인용.

북한여성의 경제의식 변화는 사유재산 및 돈과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주지하는 대로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재화가 국유, 또는 공유로 되어 있다. 또한 모든 생산과 분배는 국가주도의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북한여성들의 사유재산 및 돈의 가치에 대한 의식은 희박한 편이었다. 그러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 이후 북한여성들 사이에 사유재산 및 돈의 가치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텃밭이 허용되고, 개인 간 매매를 통한 집과 가전제품 등의 구입 및 소유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며, 또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으로 구성되는 가격의 이중구조화에 따른 결과라 하겠다. 장마당에는 식량을 비롯해 거의 모든 생활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바, 이로써 돈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돈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물가 급등, 종합시장 설치, 시장에서의 생필품 구입 등으로 인해 보다 더 심화되는 추세이다.

결 론

V

일반적으로 빈곤지역의 기근으로 인한 일차적 희생자는 여성이다.¹⁹⁵ 이에 대해 북한도 예외가 아닌바, 수년간 지속된 북한의 기근에 따른 일차적 희생자도 여성이다. 식량난은 북한여성들에게 가족부양의 책임을 떠맡겼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과 건강악화, 성폭력 등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 수단으로서 자신의 몸을 도구화하는 상황에까지 놓여졌다. 또한 식량 및 생활비 조달을 위해 경제활동이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으로 인해 종래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까지 전담함으로써 이중부담이 보다 더 가중되었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보다 열악해진 생활환경에서 생계부양자로서의 과도한 역할 부담으로 인해 북한여성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식량난은 북한여성들로 하여금 자아와 자신의 삶을 의식하게 하였으며, 정치·체제 및 상품경제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도 변

¹⁹⁵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4), p. 574.

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북한여성들은 가족부양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식변화와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여성들은 북한사회에 잔존해 있는 뿌리 깊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으로 인해 종래의 성역할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여성들은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는 편이다. 이러한 현실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이 여성들에게도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 내지 독립성 강화와 인생의 주체, 독립적 개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의식,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가정 내 성역할분업구조에서의 변화 등은 중·장기적으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의 약화와 함께 북한여성들의 역할 및 지위 향상을 전망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연구는 식량난이 북한여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밝혀 논하고자 시도된 것이며 연구결과로서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그러나 위의 분석결과들이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일반적인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다.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한계는 분석자료의 성격에서부터 비롯된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는 주로 국내외 거주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면접조사결과와 이들의 증언 자료집을 주요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현지에서의 설문·면접조사를 통한 실증자료 수집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증언 자료집을 비롯한 관련 문헌과 본 연구자가 10여 명의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의 연구는 근본적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바, 북한이탈여성은 특수한 신분일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 있어서도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탈북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식량난이 극심했던 동북부 지역 출신이며, 탈북을 결행할 만큼 생활환경 및 조건이 보다 열악했고, 또한 탈북 체험으로 인해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는 다소 다른 심리, 또는 정서를 지니고 있어 이들의 증언을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들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는 북한의 식량난이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이 이들 각 개인의 생활환경 및 조건에 따라 다소 다르며 정도를 달리한다는 데에서도 비롯된다.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식량난의 영향은 거주지역, 직업, 연령, 교육수준, 가족구조 및 가족구성원의 노동력, 사회연결망 활용 여부, 경제력 등에 따라 양상이 다르며 그 정도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일반화의 한계는 이 글의 서론에서 서술한 5편의 선행연구결과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선행연구 5편 모두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접조사결과를 주요 분석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를 선행연구 5편과 비교해보면 주요 논지는 거의 같다. 각 논문마다 일반화의 한계를 지니고는 있으나 6편 모두 거의 같은 분석결과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써 이 연구결과는 식량난이 북한여성들에게 미친 영향

과 이로 인한 역할 및 의식의 변화를 파악, 이해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의 유용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결과가 북한사회 변화실태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데에도 나름대로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정구·법륜 엮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서울: 정토출판, 1999.
- 권 혁. 『고난의 강행군』. 서울: 정토출판, 1999.
- 김승철.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 양식과 마지막 희망』. 인천: 자료원, 2000.
- 김원홍 외. 『개정 오늘의 여성학』.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 김태현·노치영.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3.
- 나초스 지음, 황재옥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서울: 다홍미디어, 2003.
-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 (사)좋은벗들 엮음. 『사람답게 살고싶소: 북한난민 1,855명 증언』. 서울: 정토출판, 1999.
-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 서울: (사)좋은벗들, 2004.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여성한국사학회연구소 편저.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002.
- 이금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좋은벗들 엮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서울: 정토출판, 1999.
- 좋은벗들. 『북한주민의 북한사회·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서울: 좋은벗들, 2000.

-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최수영 외. 『북한헌법 개정에 따른 경제부문 변화전망』 통일정세분석 98-06.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2. 논문

- 고미라 외. “가내작업반을 통해서 본 북한여성의 이중노동.” 『연구논집』 제24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 구수미·이미경. “1990년대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북한연구학회 2004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영란. “북한여성의 사회복지정책연구.” 『지역학논집』 제5집.
- 김영란·김혜영. “남북한 여성의 사회의식에 관한 비교연구 및 수렴방안.” 『아세아여성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 2000.
- 김애실. “여성의 경제활동.” 손봉숙 외.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1991.
- 김일성. “녀성동맹의 금후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1946.1-1946.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해월. “우리시대 녀성들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조선문학』 7호, 1991.
- 노옥재. “북한 식량난 속의 ‘여성’의 삶과 인권.” 『북한여성의 삶·꿈·恨』. 서울: 민주평통 북한연구회·(사)좋은벗들, 2003.
- 림금숙. “90년대이후 조선녀성들의 사회경제활동참여의 변화.”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연변대학 여성문제연구중심, 1999.
- 문숙재 외.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서울: 대한가정학회, 2000.
- 박미석·장진경. “남북한 가정 경영 비교를 통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

- 구.” 『아세아여성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 2000.
- 박영숙. “가정혁명화와 여성들의 책임.” 『조선여성』 3호, 1999.
-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 석. “1994~2000년 북한 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국가전략』 제10권 1호.
-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세미나 발표문, 2004.
- 좋은벗들 엮음.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2000.
- 정세진. “90년대 북한 경제난의 정치사회적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40집 1호.
- 조순경. “토론요지Ⅱ.” 『북한여성의 삶·꿈·恨』. 서울: 민주평통 북한연구회·(사)좋은벗들, 2003.
-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4.
- “짜고드는 사업기풍.” 『조선여성』 3호, 1999.
- 탈북인사대담. “북한 여성 농장원의 생활.” 『통일한국』 2월호, 2000.
- “투쟁도 생활도 건전하게 혁명적으로.” 『조선여성』 6호, 2000.
- 채미화. “90년대 조선문학에 나타난 여성형상.” 한국여성연구원.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연변대학 여성문제연구중심, 1999.
- 최명숙. “90년대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한국여성연구원.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연변대학 여성문제연구중심, 1999.
- 홍옥화. “재중 탈북여성·고아의 삶과 인권.” 『북한여성의 삶·꿈·恨』. 서울: 민주평통 북한연구회·(사)좋은벗들, 2003.

3. 기 타

“당의 참된 딸로 사는 행복.” 『로동신문』. 2000년 3월 8일.

“조선여성의 힘은 강하다.” 『로동신문』. 2000년 7월 30일.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감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헌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최의철·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최의철·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정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운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노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운,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